

연구보고서 2005-9

보험산업 주요 지표의 중장기 전망

2005.12

이태열 · 최영목 · 조혜원

김진억 · 최원

머리말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수행할 업무방향을 결정하는 작업은 반복적이면서도 중요한 연례행사일 것이다. 우리 원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보험산업에 대한 단기전망 작업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보험경영인조찬회를 개최하여 이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경영 전략과 비전의 수립을 위해서는 보다 멀리 내다보는 시야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장기 전망의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보험회사들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보험산업의 미래를 2015년까지 전망하였다. 장기 전망은 단기 전망에 비해 보다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감안해야 하는 만큼 어려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구조적 변화가 잦고 시계열 자료의 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의 보험산업 환경 및 수요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보험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이해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또한 중장기 전망에 활용한 방법론과 근거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망 결과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로 발간되기까지 연구 과정에서 지혜를 나눠주신 여러분과 연구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2005년 12월
보험개발원
원장 김창수

목 차

요 약	1
I. 서 론	11
1. 연구 목적	11
2. 연구의 구성	12
3. 관련 선행연구	14
II. OECD국가 보험시장의 증장기 추이와 특징	17
1. 분석모형 및 주요 변수	17
2. 최근 10년간 OECD 주요국 보험시장의 변화	25
3. OECD 주요국 보험수요 계량 분석	48
III. 우리나라 보험산업 주요지표 증장기 전망	65
1. 자료 및 분석 방법	66
2. 주요 경제 및 환경변수 증장기 전망	66
3. 보험산업 주요지표 증장기 전망	75
IV. 보험산업 증장기 전망의 의의 및 전략과제	106
1. 증장기 전망의 의의	106
2. 장기 경영 및 정책 과제	107
V. 결 론	115
< 참고 문헌 >	119

표 차례

<표 II-1> OECD 보험통계 항목	23
<표 II-2> OECD 주요국의 공공 의료비 비중 추이	31
<표 II-3> OECD 회원국의 보험환경 및 우리나라 위치(2003년)	33
<표 II-4> 각국 생명보험 종목 구성변화 추이	39
<표 II-5> OECD 회원국 종목별 침투도 및 변화(1993~2003)	47
<표 II-6> 기술 통계량 및 상관관계	49
<표 II-7> OECD 주요국의 보험수요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종목별 모형	52
<표 II-8> 생명보험료 침투도가 종속변수인 모형	53
<표 II-9> 연도별 생명보험 침투도가 종속변수인 모형	54
<표 II-10> 화재보험 침투도 및 화재보험료가 종속변수인 모형	56
<표 II-11> 자동차보험 침투도 및 자동차 대당 보험료가 종속변수인 모형	58
<표 II-12> 해상보험 침투도 및 해상보험료가 종속변수인 모형	59
<표 II-13> 보증보험 침투도 및 보증보험료가 종속변수인 모형	60
<표 II-14> 배상책임보험 침투도 및 배상책임보험료가 종속변수인 모형	61
<표 II-15> 상해건강보험 침투도 및 상해건강보험료가 종속변수인 모형	62
<표 II-16> 총의료비지출이 종속변수인 모형	64
<표 III-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76
<표 III-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구성비 추이	78
<표 III-3> 개인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81
<표 III-4>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86
<표 III-5>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구성비 추이	88
<표 III-6>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90
<표 III-7>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91
<표 III-8>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94
<표 III-9> 보증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96
<표 III-10>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98
<표 III-11>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100
<표 III-12> 연도별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추이	101
<표 III-13> 연도별 보험침투도 추이	102

<표 III-14> 연도별 1인당 보험료 추이	103
<표 III-15> 보험산업 자산 규모 시나리오	105

그림 차례

<그림 II-1> 기대여명과 노인부양비	27
<그림 II-2> 보험환경 국제비교	28
<그림 II-3> OECD 국가별 경상 GDP 대비 의료비 지출	29
<그림 II-4> 의료비/경상GDP	30
<그림 II-5> 자동차 보유대수	32
<그림 II-6> OECD 회원국 및 우리나라의 보험 침투도	34
<그림 II-7> OECD 국가별 보험침투도(2003)	35
<그림 II-8> OECD 국가별 보험침투도 변화(1993~2003)	35
<그림 II-9> OECD 회원국 및 우리나라의 종목별 구성	36
<그림 II-10> OECD 국가별 생명보험 침투도	38
<그림 II-11> OECD 국가별 생명보험 침투도 변화(1993~2003)	38
<그림 II-12> OECD 국가별 손해보험 침투도	40
<그림 II-13> OECD 국가별 침투도 변화(1993~2003)	41
<그림 II-14> 우리나라의 손해보험 침투도 변화(1994~2003)	42
<그림 II-15> 우리나라 및 OECD 회원국 손해보험 종목별 침투도 구성	43
<그림 III-1> 우리나라의 부양비 추이	68
<그림 III-2>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2005~2015년)	69
<그림 III-3>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 추이	71
<그림 III-4>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이 전망	72
<그림 III-5> 의료비 추이 전망	74
<그림 III-6> 자동차 대수 추이 전망	74
<그림 III-7>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77
<그림 III-8>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추이	78
<그림 III-9> 개인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82
<그림 III-10>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84
<그림 III-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87

<그림 III-12>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추이	88
<그림 III-13>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90
<그림 III-14>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92
<그림 III-15>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94
<그림 III-16> 보증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96
<그림 III-17>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98
<그림 III-18>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100
<그림 III-19>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 및 성장률 추이	102
<그림 III-20> 생·손보 구성비 추이	104
<그림 II-21> 보험료 대비 자산 증가 추이	105
<그림 IV-1> 보험산업 환경평가	108
<그림 IV-2> 저축/투자형 상품 정책과제	111
<그림 IV-3> 보장성 상품 정책과제	113
<그림 IV-4> 패키지형 및 정책성 보험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114

요 약

I. 서 론

- 이 보고서는 향후 2015년까지 보험 환경 및 산업의 주요지표를 전망하고 시장의 흐름을 진단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이 연구는 중·장기적인 보험시장 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의 보험환경 및 수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참조하여 국내 보험시장 환경변수 전망 및 종목별 보험시장의 규모를 전망하였음.

II. OECD 국가 보험시장의 중장기 추이와 특징

- 1993~200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보험환경 변화를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였음¹⁾.
 - 인구구조의 경우 기대여명과 노인부양비의 상승 속도가 OECD 평균의 1.5배에서 2배에 이르고 있어 현재의 인구구조는 젊으나 빠르게 고령화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규모 대비 금융자산 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 모두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소득(달러기준 1인당 국민소득) 상승 속도가

1)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유럽, 미국, 일본 등 21개국이다.

빨라 향후 성장 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됨.

- 경제 규모 대비 의료비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공공 부문의 성장속도가 빨라 민간의료비/경상GDP는 최근 오히려 하락하였음.
- 우리나라 도로 1km당 자동차수는 100대를 넘어 선진국(미국 34대, 일본 61대, 영국 62대, 프랑스 38대)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자동차등록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표 1> 주요 보험환경 변수의 국제비교

	OECD 평균		한국	
	2003년	93~03변화	2003년	93~03변화
기대여명	78.84세	+2.11세	76.40세	+3.60세
노인부양비	22.57%	+1.93%p	11.30%	+3.51%p
1인당국민소득	\$3.10만	연평균 4.6%	\$1.27만	연평균 6.1%
가계금융자산/달러GDP	1.94배	+0.19p	1.42배	+0.24p
가계보험및연금자산/ 달러GDP	0.62배	+0.13p	0.28배	+0.08p

주: 1) OECD 회원국 중 서유럽,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을 포함한 21개 국가를 대상으로 함.

2) 가계금융자산과 관련한 수치는 1995년부터 2003년의 자료를 이용하였음.

□ 우리나라의 보험침투도 수준은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2).

- 최근 10년동안 OECD회원국들의 보험침투도는 생명/손해보험 모

2) 보험침투도 = 보험료/경상GDP

두 상승하는 특징을 보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지난 10년동안 오히려 하락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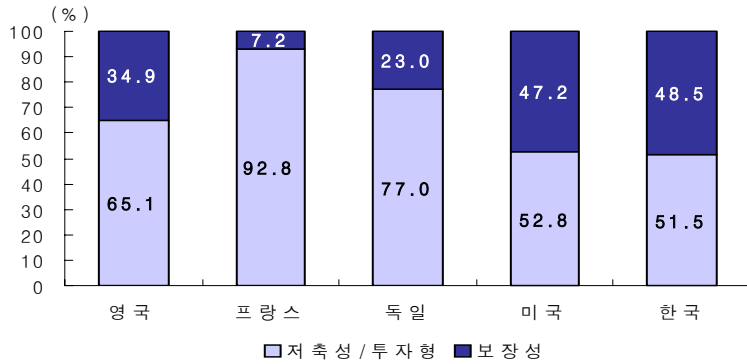
<표 2> 보험시장 침투도 변화의 국제비교

	OECD 평균		한국	
	2003년	93~03변화	2003년	93~03변화
보험전체	8.5%	1.7%p	9.9%	-3.3%p
생명보험	4.9%	1.4%p	7.0%	-3.8%p
손해보험	3.6%	0.3%p	2.9%	0.6%p

주: 자료는 OECD기준 지표이며 한국의 1993년 자료는 시계열의 한계로 1994년 지표임.

- 우리나라 생명보험은 OECD 평균에 비해 침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보장성과 저축성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 특징이 있음.
- 생명보험은 침투도 면에서 단체와 생사혼합 보험은 하락한 반면 보장성 보험이 3배 이상 큰 폭으로 성장하였으며, 경상GDP 대비 가입금액은 일본보다는 낮고 미국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임.
- 사회보장이 발전한 유럽은 저축성 중심인 반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상대적으로 보장성 보험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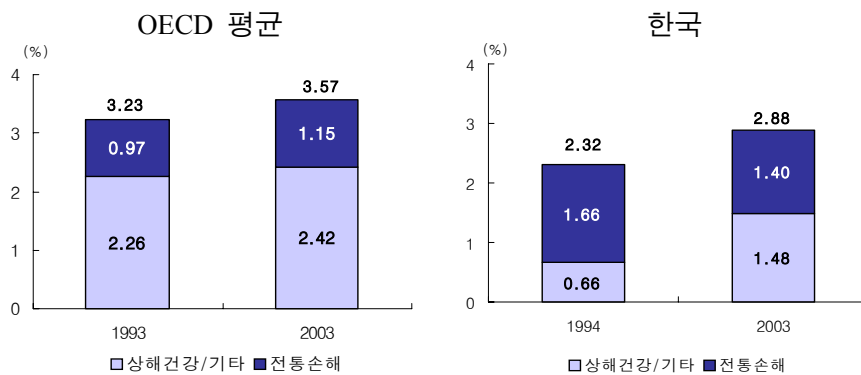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의 국제 비교



□ 손해보험이 상해건강 관련 보험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그 의존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화재, 해상 보험과 같은 전통손해보험 침투도의 정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인 추세임.
- 배상책임 및 상해건강보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에서도 손해보험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그림 2> 손해보험 침투도 변화



III. 우리나라 보험산업 주요지표 중장기 전망

- 우리나라는 향후 10년 동안 경제성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부양비가 하락³⁾하고 베이비붐세대가 50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등 은퇴에 대비한 다양한 금융수요가 팽창할 것으로 예상됨⁴⁾.
 - 2005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연령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면 50대 인구비중이 2005년 10.9%에서 2015년 15.9%로 확대될 전망이다.
 - 2010년까지 잠재GDP성장률은 4%대를 나타내다가 이후 3%대로 하락하는 등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경상경제성장률 10년 평균 6.2% 전망).
 - 총의료비는 경상GDP 성장률보다 빠른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나 공공부문의 확대로 6.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 등록대수는 향후 10년간 2%대의 완만한 성장에 그치면서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FY2010까지 고성장 후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저축성 보험을 중심으로 전체 침투도가 상승할 전망이다.
 - 생명보험 전체는 연평균 8.2%(FY2010년까지 10.1%, FY2015까지
-
- 3) 부양비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할 유년인구(0~14세)와 노년인구(65세이상)의 비율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년부양비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유년부양비의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 전체부양비가 2016년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 4)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이다.

- 6.2%)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수입보험료는 FY2010년 98.7조 원, FY2015년 133.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의 종목별 성장은 은퇴를 대비한 상품수요의 확대로 연금, 변액유니버설 등 저축성 보험의 수요가 생명보험의 성장을 주도하면서 개인생명보험의 성장은 연평균 8.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단체보험은 2005년 도입되는 퇴직연금의 성장에 힘입어 연평균 9.0%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됨.
- 특종보험 외에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이 저조한 반면 장기손해보험이 손해보험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경상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달성하여 2015년 원수보험료 51.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 손해보험은 연평균 7.2%(FY2010년까지 8.0%, 2015년까지 6.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 성장에 기인하여 손해보험 전체의 침투도는 3%대(2015년 3.4%)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보험의 경우 등록대수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FY2015년까지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며, 건강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환급형상품의 수요증가로 인해 장기손해보험은 연평균 8.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FY2015년까지 특종보험은 경상GDP 보다 빠른 11.1%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이 밖에 화재/해상/보증보험은 4%미만의 저성장기조를 보일 전망이다.

-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는 연평균 7.9%(FY2010년까지 9.5%, FY2015년까지 6.3%) 성장하여 FY2015년 184.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 총보험료침투도는 FY2004년 9.9%에서 FY2015년 12.3%(생명 8.9%, 손해 3.4%)까지 상승하여 1998년 수준(12.5%)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보험료는 FY2015년 371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IV.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의 의의 및 정책 과제

- 보험산업은 향후 10년이 성장을 위한 기회이나 2015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저성장기에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
- 향후 10년간 보험산업은 경제성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부양비 하락, 베이비붐 세대의 50대연령 진입 등 다양한 금융수요 확대가 예상되어 FY2015에 총보험료는 184.9조원, 연평균 7.9%의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 보험산업은 2015년까지를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고령화 사회 및 은퇴시장에 대비할 필요성이 존재함.
- 2005년 퇴직연금제 도입 이후 퇴직연금 시장이 발달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관련 금융수요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저축·투자형 부문의 성장이 예견됨.
- 따라서 타금융권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생존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서 보험권만의 차별적인 상품/마케팅 전략이 필요하

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체제를 마련해야 함.

-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보장성 상품 수요도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 단, 국민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민영건강보험 영역의 축소가 예상되고, 종신행 상품의 시장이 성숙되어 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풍수해보험 도입 등 재해 관련 정책성 보험이 확대될 전망이고, 다양한 위험에 대한 포괄보장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패키지형 상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 그러나 보험회사는 다양한 거대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적절한 요율 산출 및 언더라이팅 능력 제고방안이 수반되어야 함.

V. 결론

- OECD에 가입한 보험선진국들의 보험소비와 관련 환경변수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2015년까지 국내 주요 보험환경 변수와 보험지표에 대해 중장기 전망을 제시하였음.
- 전체부양비가 2016년까지 하락하고 2005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연령으로 진입하는 등 노후대비와 관련한 보험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반면, 2010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3%대로 하락하는 등 향후 10년 기간을 볼 때 환경적으로 보험산업에 위협과 기회가 상존할 것으로 예견됨.

- 생명보험은 2010년까지 고성장 후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전망되었으며,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이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경상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중장기 전망을 바탕으로 하여, 연금상품 수요증가에 대한 대비와 보장성 상품의 적절한 위험관리, 각종 정책성 보험의 도입 확대 전망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I. 서론

1. 연구 목적

전망을 실시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미래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능한 한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미래에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다. 단기 전망은 속성상 전자에 가까운 반면, 장기 전망은 전자와 후자를 포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장기전망은 보험회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미래에 어떠한 잠재 성장 비전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하는 기대를 어느 정도 내포하게 된다.

이 연구는 향후 2015년까지 보험 환경 및 산업을 전망하고 시장의 흐름을 진단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중장기 전략 및 비전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별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전체의 발전 및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보험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함께 주요 관련지표의 변화 추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이 연구는 이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국내 보험산업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며 특히 중장기적으로 보험수요를 전망한 연구는 보험개발원(2000)의 연구만이 존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주요 종목에 대해 보험료를 2010년까지 전망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상기의 작업을 5년만에 수정·보완하면서도 전망시점도 2015년까지 확장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국내 보험시장의 중장기적 추이를 예측하기에 앞서 OECD에 가입한 주요 회원국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가별 보험시장의 특징적 현상을 비교 분석한

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작업은 선진 보험시장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 보험시장이 어떠한 발전단계에 있는지,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환경변수들은 어떠한 변화의 단계에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국내 보험시장의 중장기 전망에 대한 패턴을 이해하는 데 다양하고 폭 넓은 시야를 제공하도록 시도하였다.

2. 연구의 구성

이 연구는 중·장기적인 보험시장 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인구,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보험시장 환경 변수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목별 보험시장의 규모를 전망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보험시장 변수들과 보험수요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호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보험 선진국이 대부분 포함된 OECD 주요 회원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험수요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 보험시장과 비교한 우리 보험시장의 성격을 특징짓고, 향후 우리 보험시장의 흐름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후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간략히 정리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Ⅱ장에서는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시장과 관련된 주요 변수들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들 보험 선진국들의 과거 10~15년 사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보험시장의 향후 10년 흐름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분석을 실시하였으므로 독자들은 국내 시장의 현재 상황과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Ⅱ장은 각국의 보험환경 변수 및 보험시장 주요 지표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특징을 비교하는 부분과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OECD 주요국의 종목별 보험수요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제Ⅲ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보험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수들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실시하였다.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 경제성장, 의료비, 자동차등록대수 등 다양한 변수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추이를 추정하거나 가정함으로써 주요 환경 변수를 전망하였다. 이러한 환경변수들에 대한 조망은 OECD 주요국의 그것과 비교를 통하여 천착함으로써 이후 국내 보험시장의 중장기 주요지표를 전망하는 데 하나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종목별로 우리나라의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고, 이를 주요 환경변수에 대한 전망치와 결합하여 보험시장의 주요지표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2015년까지 실시하였다. 기본적으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을 국내 시장 전망에도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일부 변수의 경우 단일 시계열적 특성이나 독립변수들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제외된 경우도 있다. 또한 보험상품의 특징상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보험소비 자체가 크게 변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계량모형뿐만 아니라 토론과정을 거쳐 연구자들의 견해를 접목하여 전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제Ⅳ장은 전체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책적 측면 또는 기업 경영전략의 측면에서 어떠한 과제가 요구되는가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이 연구의 한계점을 언급하면서 끝을 맺는다.

3. 관련 선행연구

이 연구와 가장 유사한 성격의 선행연구라고 할 수 있는 보험개발원(2000)의 보고서는 향후 보험시장을 전망함에 있어서 계량 분석을 통해 종목별 보험료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과 향후 보험시장 트렌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소개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였다. 그러나 계량 분석을 실행하는 부분에서 설명변수의 선정 및 추정 계수의 유용성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환경요인들의 변화추이와 보험수요를 연관지어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는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중장기전망에 앞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주요 환경변수의 특징과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보험수요의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국제보험시장을 대상으로 보험수요를 분석한 연구를 탐색해보았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생명보험시장 전체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밝혀진 요인과 보험수요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가를 논리적으로 규명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보험수요와 관련된 연구는 상당수 존재하지만, 이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연구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Browne and Kim(1993)의 연구는 48개 국가의 1987년 생명보험 자료에 대해서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보험수요를 결정짓는 변수로 사전에 선정된 것은 소득수준(income), 사회보장수준(social security), 기대인플레이션(expected inflation rate), 교육수준(education level), 기대여명(average life expectancy) 등이었으며, 이중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였으며 기대인플레이션이 유의한 음(-)의 계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Beck and Webb(2002)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까지 다수의 나라

들을 한꺼번에 분석했기 때문에 통계적 설명력이 선진국들 사이에 혹은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나타나기보다는 선진국 집단과 개발도상국 집단의 차이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의 대표적 연구로서 Beck and Webb(2002)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68개 국가를 대상으로 생명보험소비의 결정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실증연구를 발표하였다. 특히 보험수요의 대응변수로서 계약액 침투도와 보험료 침투도 등을 적용하였으며, 분석모형에 있어서도 횡단면분석(cross-sectional analysis)과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모두 적용하였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분리하여 테스트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들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1인당GDP, 노년부양비(old dependency ratio), 금융산업의 발전수준 등의 변수가 보험수요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플레이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손해보험 수요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세계 각국에 대한 일정한 수요 구조를 파악하기 보다는 보다 제한된 시장에 미시적인 변수 사이의 관계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Esho et al.(2004)은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국가별 법률환경, 경제성장수준(economic development), 리스크회피수준(risk aversion), 보험가격(the price of insurance) 및 손실발생가능성(the probability of loss) 등의 변수를 적용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1984~1998년 동안 44개국의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여 패널분석 및 횡단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손실발생가능성 및 소득이 손해보험 수요에 양(+)의 관계를 나타내며, 보험가격은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 밖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한 국가내의 서로 다른 지역 또는 집단간 나타나는 차이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내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개발원(2000)의 중장기전망에 관한 보고서가 있었으며, 삼성금융연구소(2004) 등의 소수 연구가 있으

나 많은 경우 생명보험에 치중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단기모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형화된 계량 모형을 찾기는 어려웠다.

II. OECD국가 보험시장의 중장기 추이와 특징

제II장은 선진국의 보험산업이 우리나라를 선행해가고 있다면 그들의 최근 경험이 향후 우리 보험시장의 미래를 보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제1절에서는 분석모형과 주요 변수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분석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고, 제2절에서는 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보험시장 및 환경 변수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논의된 변수들을 대상으로 패널 및 횡단면 분석을 통해 최근 OECD 주요국에서 보험수요를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1. 분석모형 및 주요 변수

가. 보험 수요 분석 모형

해외 보험시장의 특성을 파악함에 있어서 (1) 원자료(raw data)를 바탕으로 단순 비교하는 방법과 (2) 계량모형을 구축하여 보험수요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밝히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원자료의 단순 비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1개 주요 OECD 회원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거 10년 동안의 보험환경 및 보험시장의 변화를 대상으로 하였다⁵⁾. 1인당 GDP, 노인부양비, 기대여명 등의 보험환경 변수와 종목별 또는 전체보험시장의 침투도에 국가별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 추이에는 어떠한 상대적 특성이

5) 21개 주요 OECD 회원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을 말하며, 체코, 헝가리 등 구공산권 국가나 터키 등은 시계열 확보에 문제가 많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발견될 수 있는지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계량모형을 통한 분석은 전 장에서 소개한 연구들의 방법론을 참고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횡단면 분석 또는 패널분석을 통해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의 법칙을 파악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생명보험 전체 수입보험료에 대한 국제시장 연구가 손해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상황이다.

생명보험의 수요와 관련하여 Lewis(1989)는 보험수익자의 효용극대화를 가정하여 생명보험의 최적수요를 측정하는 이론모형을 제안하였다. Lewis가 제안한 모형은 생존한 보험수익자의 니즈(needs)를 만족시키기 위해 보험을 구매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⁶⁾.

Lewis의 모형에서 수익자는 배우자와 자녀로 나뉘며, 배우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계 내에서 임금소득자가 부담해야 할 최적수준의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표현된다.

$$(1 - Lp_i)f_i^* = \max \left\{ \left[\frac{1 - Lp_i}{L(1 - p_i)} \right]^{1/\delta} C_i^* - K_i + \frac{B}{(1+r)^{T-i}}, 0 \right\} \quad (\text{식 II-1})$$

여기서 L = 생명보험상품의 현가요소(loading factor)

p_i = 자녀의 나이 i 시점에 가계 내의 임금소득자가 사망할 확률

f_i^* = 최적 수준의 생명보험 가입금액

δ = 자녀의 상대적 위험회피도

C_i^* = 자녀가 더 이상 부모에 의존하지 않을 시점까지 가계

6) 생명보험의 수요와 관련된 이론적 모형은 Yaari(1965)의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Campbell(1980), Lewis(1989), 및 Bernheim(1991) 등 여러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들 모형은 생명보험을 가계소득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간주하여 개발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소비자가 구매한 보험상품에 대한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보험상품을 구매한다는 가정하에 모형을 도출한 바 있다.

내의 임금소득자가 생존할 경우에 자녀의 소비액에 대한 현재가치

K = 배우자의 나이 i 시점에 배우자의 임금소득

B = 자녀의 유산

τ = 배우자 생존할 것이라 가정한 나이

r = 할인율

(식II-1)의 모형은 가입금액에서 보험료(적립금)를 차감한 위험보험금이 자녀의 소비액에 대한 현재가치에서 배우자의 소득을 제외하고 유산부분을 합한 값과 0 중에 큰 값과 같다는 의미가 된다. 이 때 가계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위험회피도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생명보험 상품의 최적 구매금액은 각 구성원들의 보험금액을 모두 합한 값과 같다. 그러면 이 가계의 최적수준의 보험가입액 F 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 Lp)F = \max \left\{ \left[\frac{1 - Lp}{L(1 - p)} \right]^{1/\delta} TC - W, 0 \right\} \quad (\text{식 II-2})$$

여기서 TC 는 가계 내에서 임금소득자가 생존했다고 가정했을 때 배우자의 나이 τ 시점(자녀들이 독립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소비액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의미하고, W 는 배우자가 유산으로 받은 가계의 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식II-2)의 모형에 따르면 임금소득자가 생존했다고 가정할 경우 임금소득자의 사망 확률이 높아지고 가족 구성원의 소비액이 증가함에 따라 생명보험의 수요도 증가한다. 또한 가계 구성원의 위험회피도가 증가할수록 보험소비도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가족 구성원이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부(wealth)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생명보험의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이 외에도 모형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전적으로 보험수

요의 결정요인을 선택하는데 있어 Lewis의 모형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가계 내에서 임금소득자의 사망확률은 기대여명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사망확률과 평균여명의 상관성 수준에 해당하는 만큼 평균여명은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임금소득자가 생존했다고 가정할 경우 가족 구성원의 소비액이 증가함에 따라 생명보험의 수요도 증가하므로, 가족 구성원의 소비액을 결정하는 소득수준, 부양비율, 인플레이션 등의 변수도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불어 사회보장비(social security expenditure)의 수준은 개인보험과 대체제 관계에 있으므로 Lewis의 모형에서 개인의 부(wealth)의 수준과 같은 방향으로 보험수요와 음(-)의 상관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 가계보다는 복잡한 의사 결정 체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성 물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국가별로 제도나 전통의 차이에 따라 보험시장의 특성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소수의 연구만이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Esho et al.(2004)의 연구는 재물성 보험에 대해서 관련 제도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미시적인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보험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계량모형은 이론적 근거가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있던 간에 보험종목 i 의 수요는 (식II-3)의 형태를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단, 분석대상은 OECD 주요 회원국 21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주요국 20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 국가들에서 최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우리 보험시장의 향후 10년간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⁷⁾.

보험수요 $_i = f_i$ (인구통계학적요인, 거시경제적요인, 기타변수) (식II-3)

7) 해외보험시장 분석 방법은 크게 통계치의 단순비교와 계량분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전자의 경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1개국 전체가 OECD평균의 개념에 포함되었으나 계량모형 작성시에는 우리나라를 제외하여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설명변수가 포함되는가 여부는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으나 최대한 객관성 높은 모형의 구축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나. 국제 통계

1) 보험 통계

국제 통계를 통해서 우리나라 보험시장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계상에 나타나고 있는 차이에 대해서 보다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험관련 자료는 연도별 자료로서 OECD에서 발간한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에서 추출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는 OECD 회원국으로서 충분한 시계열이 확보되지 않는 국가를 제외하고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연도별 데이터가 존재하는 21개 국가로 한정하였다.

화폐 단위는 유럽권 국가의 경우 유로화를, 나머지 국가들은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유로화가 출범한 1999년 1월 이후부터 OECD에서 발간된 모든 자료는 각국의 통화를 유로화로 전환하여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1999년 이전에 각국의 보험료 수치는 1998년 12월 31일자로 고정된 전환비율에 따라 유로화로 전환된 값을 사용하였다⁸⁾.

생명보험의 경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망, 생사혼합, 생존 등의 분류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개인과 단체보험 사이의 구분도 없이 전체 생명보험 보험료만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에 대한 OECD 국가 분석은 전체 보험료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손해보험은 보다 구체적인 종목으로 분류된 보험료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손해보험을 분류하고 있는 방식과

8) OECD에서 제공하는 통계집은 1993년 이후부터 유로화로 전환된 보험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1989~1992년도에 각국 통화로 발표된 보험료 데이터를 OECD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1998년 12월 31일자로 고정된 전환비율을 이용하여 유로화로 환산하였다.

OECD 자료 사이에는 분류방식의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였다. <표 II-1>은 국내손해보험 종목에 해당하는 OECD 통계항목을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화재, 해상, 보증, 자동차 등은 우리나라 보험 종목의 분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의료와 관련한 종목을 중심으로 분류상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OECD 자료에서 특종보험의 경우 크게 배상책임보험(General Liability)과 건강 및 상해보험(Health/Accident)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우리나라의 특종보험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후자는 장기손해보험과 특종보험에 분산되어 포함하여야 하는 개념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장기손해보험은 제3분야보험을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후자보다 넓다. 그러나 OECD 통계는 제3분야보험을 주로 생명보험의 영역에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장기손해보험의 많은 부분은 기타(Others) 항목에 포함되는 특징이 있다⁹⁾.

따라서 본 장에서 논의하고 있는 종목별 손해보험은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분류기준과 비교할 때 특종보험의 범위는 다소 좁고, 의료 관련 특종보험의 경우 우리의 장기손해보험에서 비교적 단기성 보험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9) 손해보험 전체에서 기타(Others)항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경우 우리나라는 27.4%(2003년)인 반면 OECD 21개국 평균 7.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 OECD 보험통계 항목

국내 손해보험 종목	해당 OECD 통계 항목
화재보험	화재보험 및 재물손해 (Fire, Property damage)
해상보험	해상보험(Marine, Aviation)에 운송보험(Freight) 실적을 합산하여 사용
특종보험	배상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상해건강보험(Health/accident)
보증보험	금전손실담보(Pecuniary loss)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Motor vehicle)

보험의 종목분류뿐만 아니라 보험료의 개념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통상적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를,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OECD 보험료 통계도 이에 맞추어 사용하였다. 즉, 수입보험료 산출식에 따라 생명보험은 수입보험료(total gross premium)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료가 감안되지 않은 원수보험료(direct business)를 사용하였다¹⁰⁾.

한편, 보험료에 대한 국제 통계는 OECD 외에도 Swiss Re의 *World Insurance*, III(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의 *The Fact Book*, Tillinghast-Towers Perrin의 *Insurance Pocketbook* 등에서도 매년 발표하고 있다¹¹⁾. 이들 자료들을 OECD의 통계와 비교할 때 다소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이들 통계 사

10) “수입보험료 = 원수보험료 - 수재보험료 + 해약환급금”으로 산출된다.

11) 기관별로 매년 아래와 같은 책자를 발간하여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Swiss Re, *World Insurance*, Sigma

III(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The Fact Book*

Tillinghast-Towers Perrin, *Insurance Pocketbook*

12) 미국의 손해보험 통계의 경우 OECD 자료는 손해보험의 종목별 보험료에 생명

이에서 사용한 보험료 통계는 보험종목의 분류방식의 차이 등을 이유로 상기의 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소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보험료 추이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관의 보험료 데이터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보험 환경 변수 통계

보험 시장 환경과 관련된 변수들은 가능한 한 OECD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부족한 통계는 통계청의 『국제통계연감』 등을 활용하여 보충하였다. 국제 통계를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통화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민소득을 예로 들어도 횡단면상의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달러화와 같이 동일한 통화기준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달러기준 국민소득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환율의 변화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시계열 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많다. 이에 따라 횡단면 분석에서는 달러기준 국민소득을 사용하고 패널 분석에서는 자국 통화기준 국민소득을 활용하였다¹³⁾.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화 개념으로부터 국가별 보험시장의 특성을 일관성 있게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모두 경상GDP 대비 종목별 보험료, 즉 보험침투도를 활용하였다. 기타 의료비, 교역량 등의 지표도 가능한 한 경상GDP 대비 규모변수를 도입하여 상호 여건이 다른 국가들을 분석하는데서 발생하는 일관성의 결여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의 경제 지표와 부양비율, 인구, 기대여

보험회사의 상해/건강보험 실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다른 통계의 경우 이를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손해보험의 규모와 손해보험의 종목별 구성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13) 선진국의 경상GDP대비 금융자산 또는 보험연기금의 규모는 2000년 이후의 주가 폭락 영향으로 지난 10년간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지는 못했으나 우리나라보다는 큰 수준을 보이고 있다.

명 등의 인구구조 관련 데이터, 경상GDP 대비 사회보장비지출, 해외 교역량 등의 데이터 또한 OECD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의료비, 자동차등록대수 등 몇몇 자료의 경우 누락 또는 시계열 길이의 부족 등의 문제로 세계은행(World Bank) 또는 자동차공업협회 등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였다.

원자료는 연도별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실제 분석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5년 단위의 평균을 산출하여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그 첫째 이유는 다양한 국가에 대해서 시계열을 완벽히 구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료비, 자동차등록대수 등의 경우 가능한 한 시계열 자료를 확보한 다음 5년 단위 평균의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둘째 이유는 보험산업 환경 변수의 경우 인구구조와 같이 일정한 방향을 변화하는 변수들이 많아 설명 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국가들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측정오차도 평균의 개념을 통해 상당히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 최근 10년간 OECD 주요국 보험시장의 변화

선진국의 최근 보험시장 현황 및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함으로써 우리 보험시장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관련 변수 중 국민소득의 경우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수명이나 기대여명 등 인구구조 관련변수에 있어서는 OECD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경상GDP 대비 교역량과 경상GDP 대비 민간의료비 지출 등의 몇몇 침투도 지표는 전체 비교 대상 21개국 중 중간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의 침투도(수입보험료/경상GDP)를 볼 때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생명보험의 침투도가 OECD 21개국 중 상위권으로 나타난 반면, 손해보험경우는 중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의 경우 상해질병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를 제외할 경우 최하위권에 그치며 대부분의 개별 일반손해 및 자동차보험 침투도의 경우에도 21개 비교 대상국 중 최하위권을 나타내었다.

아래에서는 OECD 20개국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2003년 시점에 보험산업과 관련된 변수에 대해서 특징적 현상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수준을 분석하고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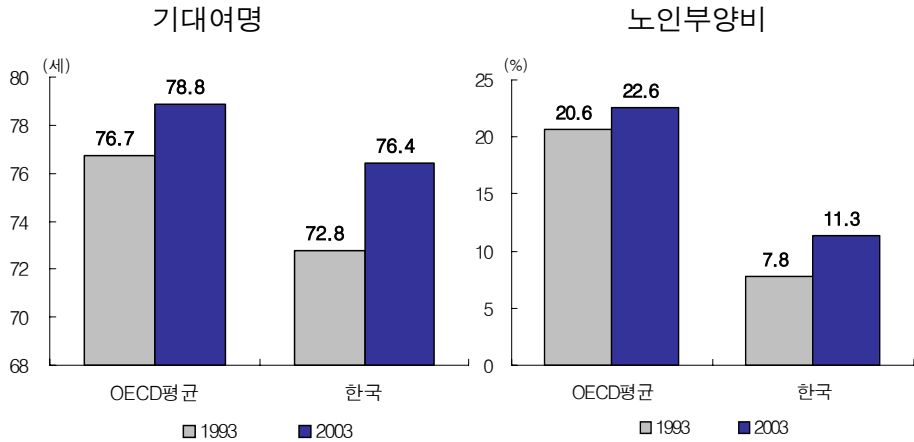
가. OECD 회원국의 보험환경

1) 보험산업 환경 관련 변수

가) 인구구조 관련 변수

2003년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21개국의 기대여명은 78.8세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비교할 경우 한국은 21개 조사대상국 중에 21번째로서 관련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기대여명은 비교 대상국 중 미국보다도 0.7세가 낮은 것이며 기대여명이 가장 길 일본의 81.8세보다는 무려 5.4세가 낮았다. 그러나 1993년에서 2003년 현재까지 수명변화는 21개국이 평균 2.1년 증가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3.6년이나 증가해 비교 대상국 중에서 1위를 차지하여 국민의 사망리스크가 빠르게 개선되는 반면, 생존리스크가 커지는 선진국형 수명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1> 기대여명과 노인부양비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004*, 2004.

한편, 조사 대상국 중 수명변화가 제일 적었던 나라는 네덜란드로 1.4년이 증가했으며 표준편차는 0.52세로 선진국의 수명증가는 느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0년 전 선진국들과 현재의 국민들이 직면하는 사망관련 리스크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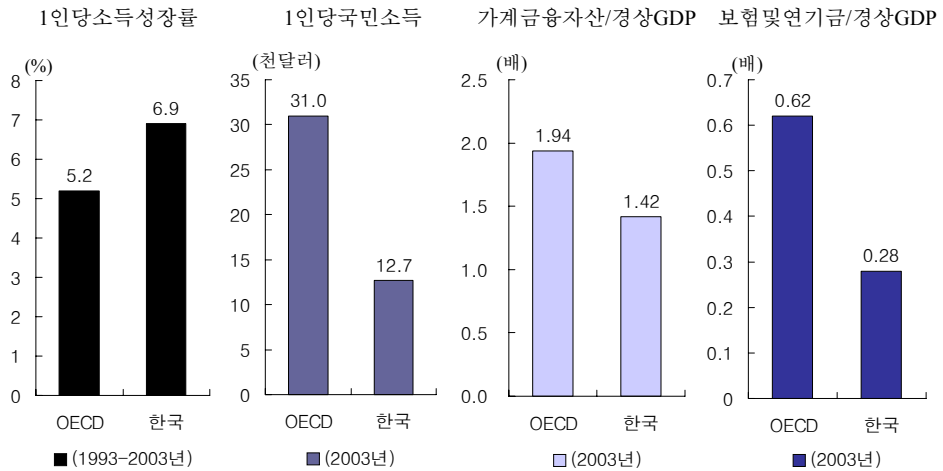
65세 이상 인구를 15세에서 64세 인구로 나눈 노년부양비는 OECD 21개 국가의 경우 2003년 현재 22.6%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노인부양비가 11.3%로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국 중에 노인부양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로 28.3%이었으며 한국 외에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일랜드로 16.8%를 보였는데 한국의 경우보다 5.5%p나 높아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특이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 1인당 국민소득

2003년 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민소득 규모는 평균 30,973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노르웨이(48,335달러), 스위스(43,849달러), 덴마크

(39,184달러) 순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2,710달러로 분석대상 21개국 중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평균 성장률은 6.9%로 나타나 OECD 21개국 평균 5.2%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2> 보험환경 국제비교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004*, 2004.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각 년도.

금융 및 보험산업의 성숙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상GDP대비 가계의 금융자산과 보험 및 연기금의 비율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 대비 3/4 또는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미성숙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및 금융산업의 발전 정도는 OECD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활력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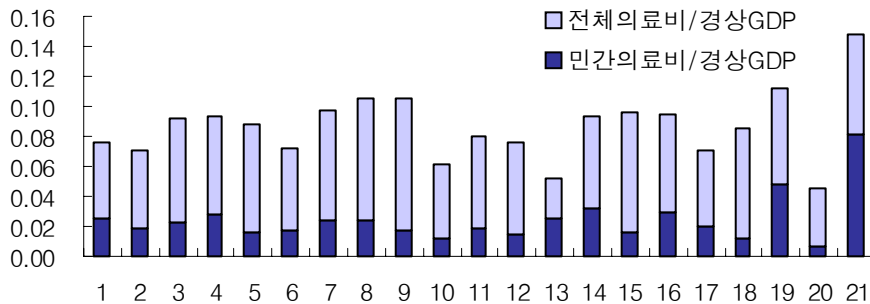
14) 가계의 경상GDP 대비 가계금융자산, 경상GDP 대비 보험 및 연기금의 비중은 데이터 확보의 한계로 인해 앞서 언급한 21개 국가 중 3개국(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스위스)을 제외한 18개국을 대상으로 산출하였다.

다) 의료비지출

GDP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 8.64%, 표준편차 2.22%를 나타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14.7%), 스위스(11.3%), 독일(10.6%), 아이슬란드(10.5%) 순이며, 우리나라는 5.2%로 21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GDP 대비 의료비지출 변화는 0.6%로 포르투갈(2.4%), 아이슬란드(2.2%), 스위스(2.1%), 노르웨이(2.0%)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2%로 8위를 기록하면서 의료비지출액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 2.43%, 표준편차 1.57%를 보이고 있으며, 과거 10년간 0.22%p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민간의료비지출의 비중은 0.026(6위)으로 나타나 전체 의료비 지출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의료비 중에 48.7%가 민간의료비에 의해 지출되고 있어 OECD 주요 회원국에 비하여 공공부문의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그림 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을 제외한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체 의료비 대비 민간의료비 비중이 10~30% 가량이다.

<그림 II-3> OECD 국가별 경상 GDP 대비 의료비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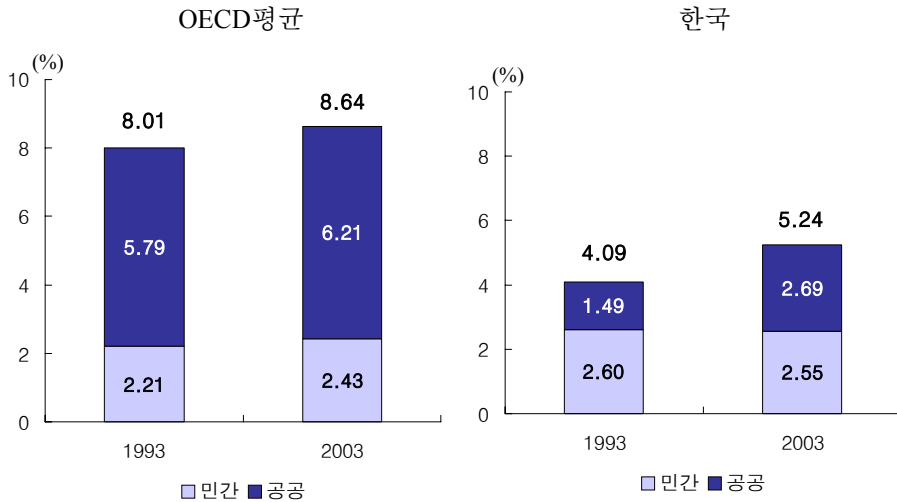


주: X축은 분석대상 OECD 국가를 의미함. 즉, 1) 호주, 2) 오스트리아, 3) 벨기에, 4) 캐나다, 5) 덴마크, 6) 핀란드, 7) 프랑스, 8) 독일, 9) 아이슬란드, 10) 아일랜드, 11) 이탈리아, 12) 일본, 13) 한국, 14) 네덜란드, 15) 노르웨이, 16) 포르투갈, 17) 스페인, 18) 스웨덴, 19) 스위스, 20) 영국, 21) 미국임.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005*, 2005.

최근 경상GDP대비 의료비를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의료비에서 공공의료비의 비중이 1993년 31.5%에서 2003년 51.3%로 급속히 확대되면서 경상GDP 대비 민간의료비는 오히려 같은 기간 2.60%에서 2.55%로 하락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4> 의료비/경상GDP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005*, 2005.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각 년도.

<표 II-2> OECD 주요국의 공공 의료비 비중 추이

(단위: %)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호주	66.0	65.9	66.8	66.3	67.8	n/a	69.4	68.1	66.9	n/a	n/a	n/a
오스트리아	72.7	73.1	71.5	71.1	72.3	72.5	72.3	72.1	72.5	73.5	n/a	n/a
벨기에	n/a	n/a	76.8	78.2	75.4	74.8	74.6	74.6	75.4	73.8	74.5	n/a
캐나다	72.4	71.6	71.1	70.7	69.8	70.2	69.8	70.0	69.8	69.5	n/a	n/a
덴마크	82.3	81.7	82.0	81.9	81.7	81.4	81.7	82.0	82.1	82.5	82.6	n/a
핀란드	n/a	74.8	74.9	75.1	75.3	75.6	74.6	74.4	75.0	75.4	75.7	n/a
프랑스	75.8	75.3	75.7	75.5	75.7	75.4	75.4	75.2	75.4	n/a	n/a	n/a
독일	79.5	79.6	79.8	79.9	78.3	78.0	77.9	78.0	77.8	78.0	77.7	n/a
아이슬란드	82.9	83.1	83.5	82.9	81.7	81.5	82.7	82.2	82.4	82.9	n/a	n/a
아일랜드	74.8	74.3	73.8	74.2	76.0	78.6	75.9	76.5	79.3	79.7	n/a	n/a
이태리	78.3	75.8	73.2	73.3	73.4	73.1	73.4	74.9	77.6	77.5	77.1	78.4
일본	n/a	n/a	81.9	81.8	80.5	79.7	80.3	80.6	81.0	n/a	n/a	n/a
한국	36.5	36.2	36.9	39.2	41.9	44.8	45.1	47.5	53.4	51.9	51.3	n/a
네덜란드	77.3	76.4	75.4	69.9	71.2	n/a	65.8	66.4	65.8	65.5	65.6	n/a
노르웨이	84.3	84.4	83.9	83.7	83.8	84.0	84.4	84.4	n/a	82.9	n/a	n/a
포르투갈	62.1	62.1	n/a	64.1	64.4	66.0	66.5	68.8	70.0	70.0	69.3	n/a
스페인	76.3	75.5	72.0	72.2	72.2	71.9	71.8	71.4	71.0	71.0	70.9	n/a
스웨덴	n/a	87.2	86.6	87.2	85.9	85.8	85.9	85.5	85.4	85.9	n/a	n/a
스위스	53.0	52.8	52.1	53.3	53.9	53.5	54.0	54.4	55.9	56.7	n/a	n/a
영국	84.4	83.8	84.1	84.1	n/a	n/a	n/a	n/a	n/a	n/a	n/a	n/a
미국	43.5	45.2	45.6	45.9	45.5	44.7	44.4	44.5	45.1	45.2	44.7	n/a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005*, 2005.

라) 기타 사회환경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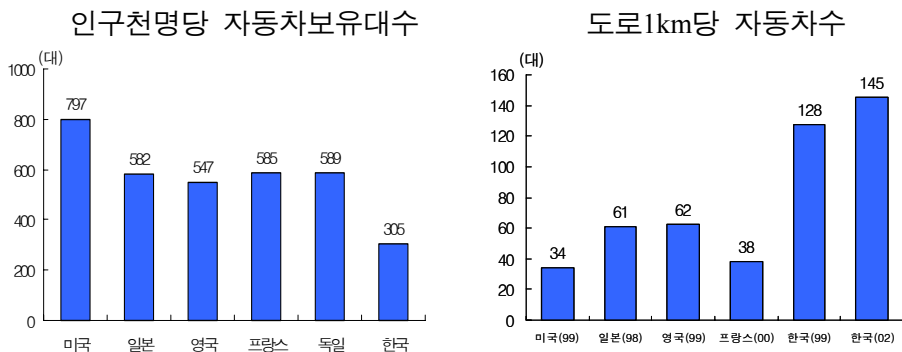
2001년 사회보장비지출이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비지출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6.1%로 OECD 회원국 중 21위를 기록하였다. 21개국 평균이 21.8%임을 감안할 때, 동 수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20위를 기록한 아일랜드의 13.8%와 비교해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1993년 3.3%에 비하여 2.8%p 증가하였으나, 과거 10년간 사회보장비지출 비중 추이를 볼 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 사

회보장 여건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천명당 자동차보유대수는 2003년 OECD 평균 539대로 1993년보다 77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천명당 305대의 자동차보유대수를 나타내면서 대상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였으나, 자동차보유대수 변화는 163대 증가하여 과거 10년간 보유대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 자동차 내수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인당 자동차보유대수를 국제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아직 OECD 주요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혼잡도를 나타내는 도로1km당 자동차수는 145대(2002년 기준)로서 선진국의 비해 몇 배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도로 1Km당 자동차대수는 미국이 34대(1999년 기준), 일본이 61대(1998년 기준), 영국이 62대(1999년 기준), 그리고 프랑스가 38대(2000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인프라가 자동차보유대수의 증가를 뒷받침하기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상GDP 대비 교역량은 OECD 회원국 평균 73.8%, 표준편차 34.8%로 나타났고, 1993~2003년간 13.8%만큼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73.5%로 21개국 중 9위를 차지하였으며, 지난 10년간 GDP에서 차지하는 교역량 비중 변화는 20.8%로 5번째로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5> 자동차 보유대수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각 년도.

<표 II-3> OECD 회원국의 보험환경 및 우리나라 위치(2003년)

구분	OECD 회원국				한국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한국	한국 순위
1인당 국민소득(\$)	30,973	8,548	48,335	12,710	12,710	21
변화(2003-1993)	10,018	5,537	24,119	-1,260	4,516	20
수명(세)	78.84	1.34	81.80	76.40	76.40	21
변화(2003-1993)	2.11	0.52	3.60	1.40	3.60	1
노인부양비(%)	22.57	4.27	28.31	11.30	11.30	21
변화(2003-1993)	1.93	2.33	8.45	-1.65	3.51	4
천명당 자동차보유대수(대)	539	106	797	305	305	21
변화(2003-1993)	77	41	163	-15	163	1
교역량/GDP(%)	73.76	34.84	159.23	22.07	73.51	9
변화(2003-1993)	13.78	9.79	33.85	-0.52	20.85	5
사회보장비/GDP(%)	21.82	5.89	29.22	6.12	6.12	21
변화(2003-1993)	-1.52	3.86	4.44	-7.85	2.82	4
전체의료비/GDP(%)	8.64	2.22	14.74	4.58	5.24	20
변화(2003-1993)	0.63	1.12	2.35	-0.02	1.16	8
민간의료비/GDP(%)	2.43	1.57	8.15	0.73	2.55	6
변화(2003-1993)	0.22	0.39	1.35	-0.42	-0.04	16

주: 1) 평균값은 단순 평균을 의미함.

2) 우리나라의 순위는 21개국 중의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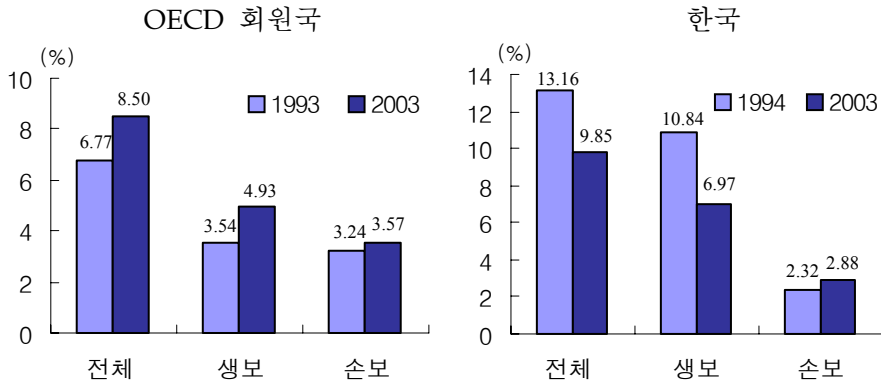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005*, 2005.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각 년도.

나. 보험산업 지표 변수

OECD 주요 선진국의 보험산업은 과거 10년동안 경상GDP보다 빠른 보험료 성장을 보였다. 이는 보험산업이 선진국에서 최근 성장산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II-6> OECD 회원국 및 우리나라의 보험 침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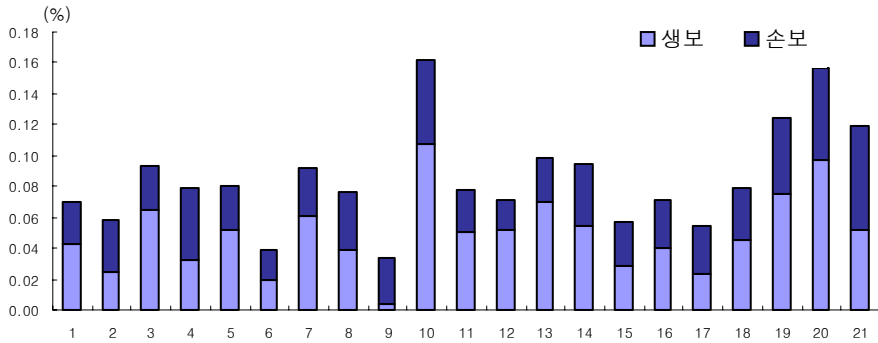
주: 우리나라는 1993년 OECD 통계가 없어 부득이하게 1994년 자료를 사용함.
 자료: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각 년도.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각 년도.

보다 자세히 지표변화를 살펴보면 2003년 OECD 주요 회원국들의 보험침투도는 평균 8.50%, 표준편차 3.33%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 생명보험 침투도는 4.93%, 손해보험 침투도는 3.57%로 전체 보험시장에서 생명보험이 점유하는 비중은 58.0%를 나타내었다. 과거 10년전과 비교해보면, 1993년 평균 보험침투도는 6.77%, 생명보험 침투도는 3.54%, 손해보험 침투도는 3.24%로 지난 10년간 OECD 주요국들의 보험 산업은 생명보험 위주로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OECD 주요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의 침투도를 분석해보면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의 보험산업 전체 침투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생명보험의 침투도가 0.01%p, 손해보험의 침투도가 0.002%p 감소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생명보험의 침투도는 0.01%p, 0.02%p, 0.002%p, 0.01%p 증가하였다. 손해보험의 침투도 역시 0.002%p, 0.004%p, 0.003%p, 0.002%p 각각 증가하였다. 이들 국가 모두는 생명보험의 침투도가 손해보험의 침투도보다 높았으며 변화의 폭도 더욱 커서 생명보험

이 산업의 성장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독일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침투도가 거의 비슷하여 어느 한쪽이 성장을 이끌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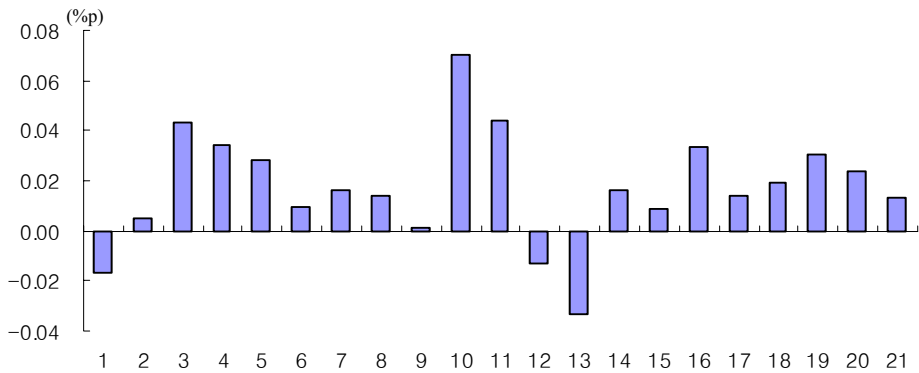
<그림 II-7> OECD 국가별 보험침투도(2003)



주: X축은 분석대상 OECD 국가를 의미함. 즉, 1) 호주, 2) 오스트리아, 3) 벨기에, 4) 캐나다, 5) 덴마크, 6) 핀란드, 7) 프랑스, 8) 독일, 9) 아이슬란드, 10) 아일랜드, 11) 이탈리아, 12) 일본, 13) 한국, 14) 네덜란드, 15) 노르웨이, 16) 포르투갈, 17) 스페인, 18) 스웨덴, 19) 스위스, 20) 영국, 21) 미국임.

자료: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각 년도.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각 년도.

<그림 II-8> OECD 국가별 보험 침투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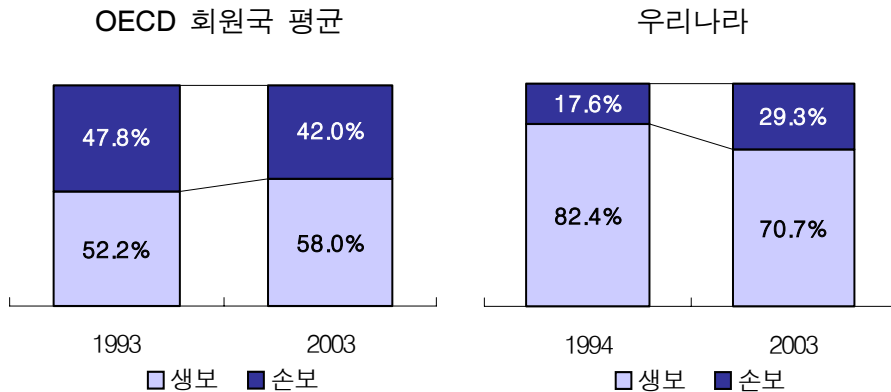


주: 1) X축은 분석대상 OECD 국가를 의미함. <그림 II-7> 참조
 2) 우리나라는 1994년 통계를 사용함.

자료: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각 년도.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각 년도.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보험침투도는 9.85%를 나타내면서 21개국 중 5위를 기록하였다. 보험종목별로는 생명보험 침투도가 6.97%, 손해보험 2.88%로 생명보험 점유율이 70.7%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생명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반면에, 1994년과 비교하면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의 성장이 두드러졌다¹⁵⁾. 1994년의 생명보험 침투도는 10.84%에서 2003년 6.97%로 3.87%p 감소하였으나, 손해보험 침투도는 2.32%에서 2.88%로 0.56%p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시장에서 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17.6%에서 29.3%로 확대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OECD 주요국들과는 달리 손해보험 위주의 성장세를 나타내었으나, OECD 국가에 비하여 여전히 손해보험의 점유율이 낮은 수준이다.

<그림 II-9> OECD 회원국 및 우리나라의 종목별 구성



주: 우리나라는 1994년 통계를 사용함.

자료: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각 년도.

15) 우리나라는 1993년 OECD 통계가 없어 부득이 1994년 자료를 사용함.

1) 생명보험

생명보험의 경우 자료원이 되는 OECD 보험관련 자료상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만이 이용가능하며, 보험의 종목별 자료는 각국의 분류와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분석이 가능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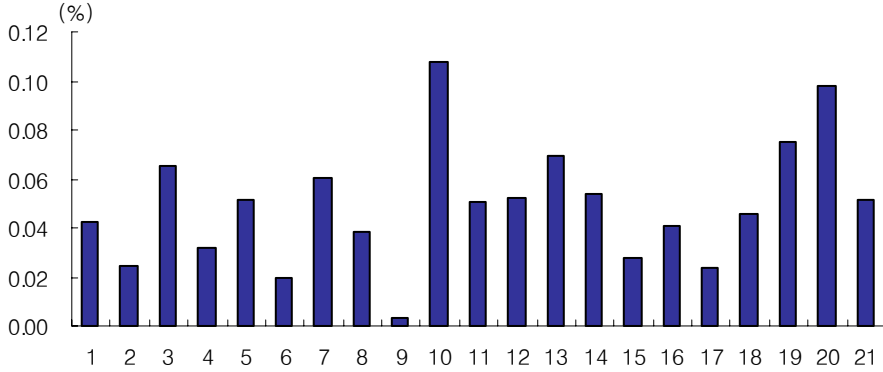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를 각국의 GDP로 나눈 생명보험 침투율은 2003년 OECD 평균 4.93%였으며, 최대 아일랜드의 10.8%, 최저 아이슬란드의 0.3%, 표준편차 2.50%였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침투도는 6.97%로 조사대상국 중에 4위를 차지해 생명보험에 대한 지출이 높았음을 보여줬으며 이는 프랑스, 일본, 미국 등보다도 높은 것으로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아일랜드, 영국, 스위스뿐이었다.

OECD 자료를 통해서 생명보험의 종목별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이 절에서는 *The Fact Book*과 *Insurance Pocketbook* 등을 활용하여 국가별 보험 종목의 구성을 파악하여 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의 경우 보장성 보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미국은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이 균형을 이루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보험 종목 구성은 미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저축성 보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국가별로 정리 하면 <표 II-4> 과 같다.

2003년의 수치를 자료 확보가 가능했던 1994년과 비교하면 저축 및 투자형에 대한 비중이 일본과 독일은 축소되었으나 나머지 국가는 모두 증가해, 세계적으로 저축 및 투자형 보험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10> OECD 국가별 생명보험 침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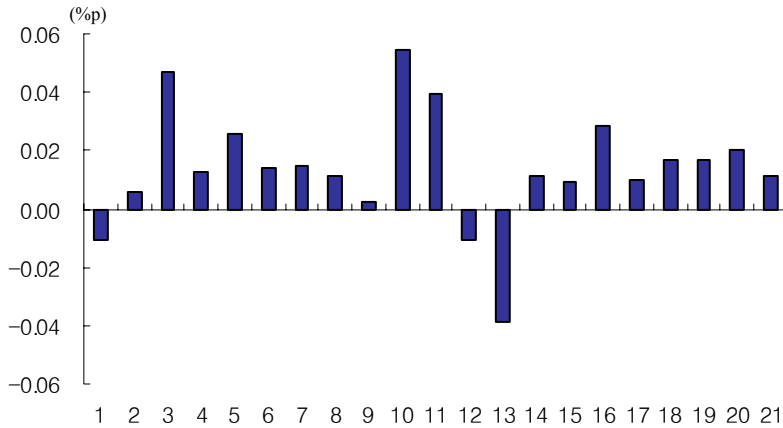


주: X축은 분석대상 OECD 국가를 의미함. 즉, 1) 호주, 2) 오스트리아, 3) 벨기에, 4) 캐나다, 5) 덴마크, 6) 핀란드, 7) 프랑스, 8) 독일, 9) 아이슬란드, 10) 아일랜드, 11) 이탈리아, 12) 일본, 13) 한국, 14) 네덜란드, 15) 노르웨이, 16) 포르투갈, 17) 스페인, 18) 스웨덴, 19) 스위스, 20) 영국, 21) 미국임.

자료: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각 년도.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각 년도.

<그림 II-11> OECD 국가별 생명보험 침투도 변화(1993~2003)



주: X축은 분석대상 OECD 국가를 의미함. <그림 II-10> 참조

자료: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각 년도.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각 년도

<표 II-4> 각국 생명보험 종목 구성변화 추이

(단위 : %, %p)

구 분		1994	2003	증감
영 국	저축성/투자형	60.7	65.1	+4.4
	보장성	39.3	34.9	
독 일	저축성/투자형	89.9	77.0	-12.9
	보장성	10.1	23.0	
프랑스	저축성/투자형	90.6	92.8	+2.2
	보장성	9.4	7.2	
스웨덴	저축성/투자형	n/a	90.6	
	보장성	n/a	9.4	
이태리	저축성/투자형	88.1	91.3	+3.2
	보장성	11.9	8.7	
일 본	저축성/투자형	14.2	6.6	-7.6
	보장성	85.8	93.4	
미 국	저축성/투자형	47.2	52.8	5.6
	보장성	52.8	47.2	

주: 영국 : 신계약보험료기준, 독일 : 신계약보험료기준, 프랑스 : 수입보험료기준, 스웨덴 : 신계약보험료, 이태리 : 수입보험료기준, 일본 : 보유계약가입금액기준, 미국 : 수입보험료기준

출처: Tillinghast Towers Perrin, *Insurance Pocket Book*, 2004.

2) 손해보험

2003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의 손해보험 침투도는 평균 3.57%, 표준편차 1.2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장기손해보험에 해당하는 기타, 상해 및 건강 부분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이하 ‘전통손해보험’이라 함)에는 평균 침투도 2.42%, 표준편차 0.95%p로 손해보험 전체에 비하여 국가간에 고른 침투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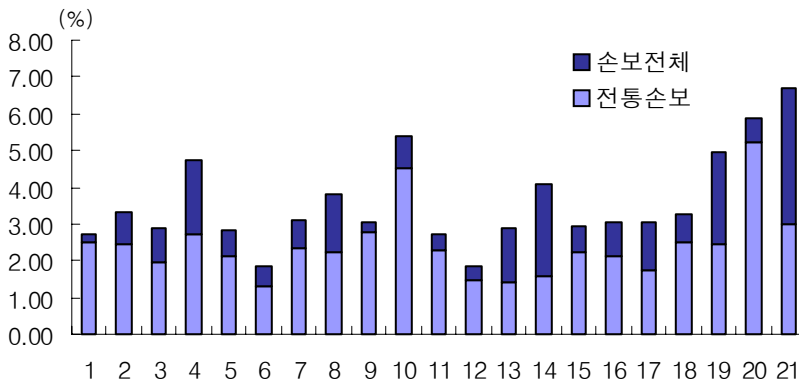
손해보험 침투도는 미국이 6.69%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88%로 15위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손해보험 침투도를 보이는 국가로는 프랑스(3.09%), 노르웨이(2.92%), 벨기에(2.87%), 이탈리아(2.70%) 등이다.

1993~2003년간 손해보험 침투도 변화는 OECD 회원국 평균 0.34%p, 표준편차 0.67%p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0.56%p 증가하여 캐나다, 아일랜드, 스위스에 이어 4번째로 지난 10년간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손해보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침투도 수준은 21개국 중 15위로 하위권이었으나 침투도 변화로 보아 손해보험 성장 속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통손해보험의 침투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1.40%로 20위를 나타내어 손해보험에서 상해건강 및 장기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높은 반면, 보다 순수한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발달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보험 침투도에서 전통손해보험 침투도를 뺀 부분, 즉 상해건강 및 장기손해보험 침투도는 우리나라가 1.48%로 프랑스(0.70%), 노르웨이(0.67%), 벨기에(0.93%), 이탈리아(0.43%)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그림 II-12>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12> OECD 국가별 손해보험 침투도



주 : X축은 분석대상 OECD 국가를 의미함. 즉, 1) 호주, 2) 오스트리아, 3) 벨기에, 4) 캐나다, 5) 덴마크, 6) 핀란드, 7) 프랑스, 8) 독일, 9) 아이슬란드, 10) 아일랜드, 11) 이탈리아, 12) 일본, 13) 한국, 14) 네덜란드, 15) 노르웨이, 16) 포르투갈, 17) 스페인, 18) 스웨덴, 19) 스위스, 20) 영국, 21) 미국임.

자료: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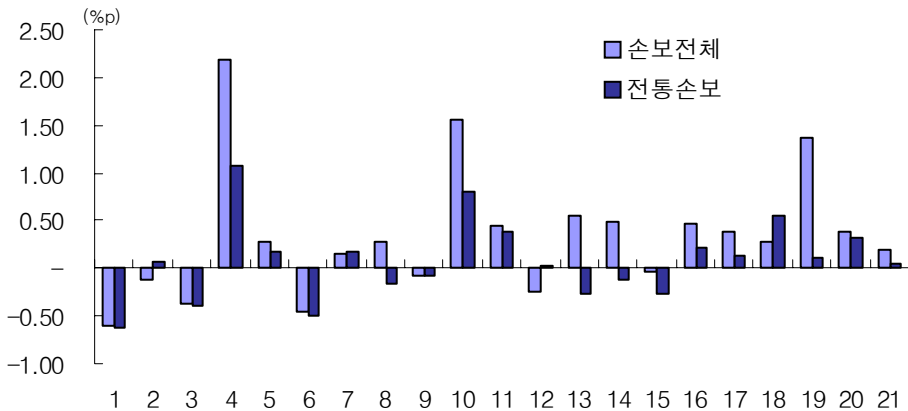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각 년도.

그러나, 장기손해보험에 해당하는 기타, 상해 및 건강 부분을 제외한 전통손해보험의 경우, 침투도 수준도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과거 10년간 침투도 변화도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즉, 2003년 전통손해보험 침투도는 1.40%로 20위를 차지하였으며, 1993년보다 0.27%p나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주요국에서도 손해보험 전체 침투도 변화보다 전통손해보험 침투도 변화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장기손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위주의 성장이 전 세계적인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즉, OECD 주요국의 지난 10년간 손해보험 침투도 변화는 평균 0.34%p인 반면, 전통손해보험 침투도 변화는 0.08%p에 불과하였다.

<그림 II-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손해보험 침투도 변화는 플러스를 나타낸 반면, 장기손해 및 상해건강보험을 제외한 전통손해보험 침투도 변화가 마이너스인 국가는 독일, 네덜란드에 불과하다.

<그림 II-13> OECD 국가별 침투도 변화(1993~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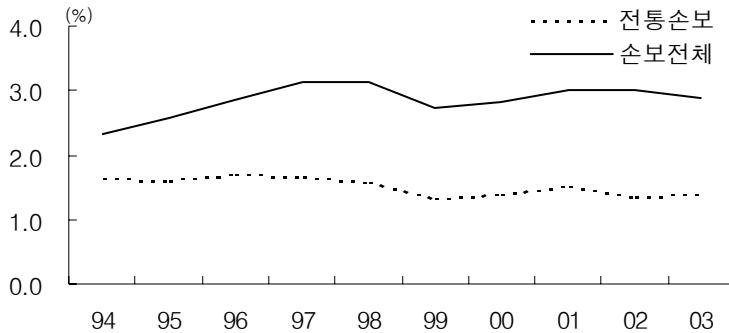


주: X축은 분석대상 OECD 국가를 의미함. <그림 II-12> 참조
 자료: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각년도.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각 년도.

손해보험 침투도 변화로 볼 때, 우리나라 손해보험 산업은 최근 장기손해보험 위주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장기보험 이외의 종목이 상대적으로 부진함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손해보험 전체의 침투도는 증가한 반면, 전통손해보험 침투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1-14> 우리나라의 손해보험 침투도 변화(1994~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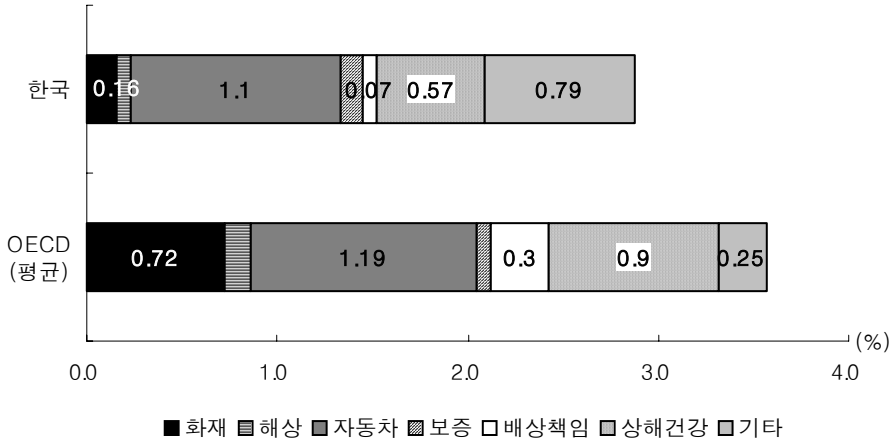


자료: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각 년도.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각 년도.

손해보험 침투도의 종목별 구성을 살펴보면, OECD 회원국 평균 손해보험 침투도 3.57% 중에서 자동차보험 침투도가 1.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상해건강보험이 0.90%, 화재보험 0.72%의 침투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손해보험 전체 침투도 2.88% 중 자동차보험이 1.10%, 기타보험의 침투도가 0.79%, 상해건강보험이 0.5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실적이 상해건강보험 및 기타보험으로 집계됨에 따른 결과로 보여지며 화재보험, 해상보험, 배상책임보험의 침투도는 OECD 회원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그림 II-15> 우리나라 및 OECD 회원국 손해보험 종목별 침투도 구성



주: OECD 평균이란 분석 대상국가 21개국 침투도의 단순 평균임.
 자료: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각 년도.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각 년도.

종목별 침투도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주요국에서도 자동차, 화재, 해상보험보다는 배상책임보험 및 상해건강보험에서 침투도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자동차, 화재, 해상의 경우 OECD 평균 침투도는 1993년 1.14%, 0.69%, 0.20%에서 각각 0.05%p, 0.03%p, -0.06%p 상승하여 사실상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소폭 감소했으나 상해건강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은 같은 기간 0.23%, 0.05%에서 0.07%p, 0.25%p 상승하여 경상GDP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해건강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의 침투도 변화에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어 유사한 추이가 나타났다.

가) 화재보험

화재보험 침투도는 OECD 회원국 평균 0.72%, 표준편차 0.35%를 보

이며, 우리나라는 0.16%로 스페인(0.15%)에 이어 가장 낮은 순위(20위)를 나타내었다. 영국의 경우 화재보험 침투도가 1.61%로 자동차보험(1.52%)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화재보험이 종목별로 가장 높은 침투도를 보이고 있다.

화재보험의 과거 10년간 침투도 변화는 OECD 회원국 평균 0.03%p를 보이고 있으며, 21개국 중 9개국에서 마이너스 변화를 나타내었다. 아일랜드(0.32%p), 캐나다(0.25%p) 등에서 높은 침투도 변화를 보였고, 우리나라는 -0.02%p로 15위를 기록하였다.

나) 해상보험

해상보험은 OECD 회원국 평균 침투도가 0.14%, 표준편차 0.15%를 나타내어 국가 간 격차가 큰 편이다. 해상보험 침투도가 높은 국가로는 전통적으로 동 보험시장이 발달한 영국(0.60%)과 해상국가인 노르웨이(0.54%)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0.07%로 21개국 중 14위로 프랑스(0.07%), 포르투갈(0.07%), 핀란드(0.08%), 일본(0.06%), 이탈리아(0.06%)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해상보험은 OECD 회원국 평균 -0.06%p의 침투도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스웨덴(0.08%p), 아일랜드(0.05%p), 스위스(0.01%p) 등을 제외한 11개국에서 마이너스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상보험 침투도 변화는 -0.05%p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침투도는 OECD 회원국 평균 1.19%, 표준편차 0.30%p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71%로 1위를 차지하였고 우리나라는 1.10%로 10위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자동차보험 침투도를 보이는 국가로는 오스트리아(1.11%), 스위스(1.09%), 스웨덴(1.08%), 스페인(1.33%) 등이 있다.

자동차보험은 과거 10년간 평균 0.05%p의 침투도 변화를 보였으며,

캐나다(0.48%p), 스웨덴(0.37%p), 이탈리아(0.31%p)에서 GDP 대비 자동차보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0.04%p로 14위를 기록하면서 최근 자동차보험 산업의 저성장세를 반영하고 있다.

라) 보증보험

보증보험은 OECD 회원국 평균 침투도가 0.08%, 표준편차 0.12%p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영국이 0.57%로 가장 높은 침투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0.14%), 한국 및 프랑스(0.12%), 오스트레일리아(0.09%), 벨기에 및 이탈리아(0.08%) 순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0.10% 이하의 침투도를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의 보증보험 침투도는 3위를 기록하면서 OECD 회원국에 비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보증보험에 있어서는 평균 -0.01%p로 가장 높은 침투도 변화를 보인 국가는 영국(0.15%p), 가장 낮은 변화를 나타낸 국가는 핀란드(-0.26%p)로 대체적으로 지난 10년간 GDP에서 차지하는 보증보험의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보증보험 침투도는 3위를 기록한 반면, 침투도 변화는 -0.09%p를 나타내어 IMF 이후 보증보험 시장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침투도는 평균 0.30%, 표준편차 0.36%를 보이며, 아일랜드가 1.57%, 영국이 0.96%로 높은 침투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호주(0.53%), 스위스(0.43%), 캐나다(0.35%), 독일(0.33%), 미국(0.31%)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0.07%로 19위를 기록하면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배상책임보험의 침투도 변화는 OECD 회원국 평균 0.07%를 나타내었으며, 호주(-0.48%p), 벨기에(-0.02%p), 미국(-0.02%p)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플러스 변화율을 보이면서 성장산업임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

라의 배상책임보험 침투도는 지난 10년간 0.05%p 증가하면서 GDP보다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바) 상해건강보험

상해건강보험의 경우에는 OECD 평균 침투도 0.90%, 표준편차 0.73%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55%의 침투도를 보이면서 1위를 기록하였고, 스위스(2.35%), 네덜란드(2.13%), 캐나다(1.99%)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건강보험 실적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침투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해건강보험 침투도는 0.57%로 14위를 차지하였으며, 스페인(0.58%), 덴마크(0.64%), 핀란드(0.48%) 등이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기손해보험 보험료의 일부가 상해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있어 전체 손해보험 침투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상해건강보험은 과거 10년 평균 0.25%p로 가장 높은 침투도 변화율을 나타낸 종목이다. 국가별 변화에 있어서도 스웨덴(-0.48%p), 일본(-0.26%p), 오스트리아(-0.08%p)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플러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0.17%p의 변화율로 21개국 중 9위를 보이면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표 II-5> OECD 회원국 종목별 침투도 및 변화(1993~2003)

(단위 : %, %p)

구 분	OECD 회원국				한국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한국	한국 순위
손보침투도	3.57	1.27	6.69	1.84	2.88	15
침투도변화	0.34	-	2.19	-0.60	0.56	4
전통손보침투도	2.42	0.95	5.25	1.31	1.40	20
침투도변화	0.08	-	1.08	-0.61	-0.27	17
자동차침투도	1.19	0.30	1.71	0.67	1.10	10
침투도변화	0.05	-	0.48	-0.23	-0.04	14
화재침투도	0.72	0.35	1.61	0.15	0.16	20
침투도변화	0.03	-	0.32	-0.18	-0.02	15
해상침투도	0.14	0.15	0.60	0.04	0.07	14
침투도변화	-0.05	-	0.08	-0.40	-0.05	17
보증침투도	0.08	0.12	0.57	0.01	0.12	3
침투도변화	-0.01	-	0.15	-0.26	0.12	2
배상책임침투도	0.30	0.36	1.57	0.06	0.07	19
침투도변화	0.07	-	0.32	-0.48	0.05	7
상해건강침투도	0.90	0.73	2.55	0.13	0.57	14
침투도변화	0.25	-	1.82	-0.48	0.17	9

주: 1) 우리나라의 순위는 21개국 중의 순위임.

2) 전통손보는 자동차, 화재, 해상 및 배상책임의 합계를 의미함.

3) 우리나라는 1994년, 2003년 실적 기준이며, 보증보험은 1994년, 2001년 실적 기준임.

자료: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각 년도.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각 년도.

3. OECD 주요국 보험수요 계량 분석

이 절은 앞서 국제 비교에 포함된 21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이들 요인이 보험수요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모형을 이용한 계량 분석을 통해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모형설정 및 실증분석에 앞서 관련 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량 및 상관관계를 통해 기초적인 이해를 높이며, 이후에는 각 보험 종목별로 설정된 모형을 표를 통해 간략히 정리하고, 마지막 단계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논의진행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기술 통계량 및 상관관계

앞서 국제비교에 포함된 21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국을 대상으로 계량 분석을 실시하며, 분석기간은 1989~2003년이며 이를 5개년씩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 시계열의 평균값을 구하여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표 II-6>의 Panel A는 설명변수로 활용될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소개하고 있으며, Panel B는 이들 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변수는 생명보험의 수요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활용한 설명변수들과 일치한다. 먼저 Panel A를 살펴보면 각 국가별 및 연도별로 경제적으로요인과 인구통계학적요인이 분석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Panel B를 보면 선택적으로 선택된 변수들과 보험수요 사이에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GDP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의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1인당 GDP는 유의한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부양비가 큰 국

가일수록 보험수요가 감소하며 유년부양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특기할 사항은 정부부문의 사회보장지출이 증가할 경우 보험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형적 상관관계 자체만으로는 이론적인 설명력이 없으므로 이후의 모델에 기반하여 보다 구체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즉, 모형에 삽입된 여러 변수들 사이의 상관성을 고려한 후에도 각각의 변수들이 보험수요에 어떠한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II-6> 기술 통계량 및 상관관계

Panel A. 기술 통계량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인당 GDP(천\$)	60	23.88	7.52	6.89	40.16
유년부양비(%)	60	28.36	4.48	21.09	43.16
노년부양비(%)	60	21.20	4.08	7.43	27.61
기대여명(년)	60	77.56	1.47	74.18	81.10
인플레이션(%)	60	2.76	1.60	-0.58	8.74
경상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60	21.91	6.58	3.15	33.04
경상GDP 대비 총의료비지출(%)	55	8.34	1.65	5.40	13.90
경상GDP 대비 민간의료비지출(%)	55	2.51	1.50	0.30	7.10
자동차보유대수 (천명당 대수)	40	493.54	121.02	206.90	779.40

주: 경상GDP는 각국 통화로 되어 있어 기술통계량 산출이 무의미하며, 해외교역량 또한 각국 통화로 된 데이터만이 존재하여 표에 제시하지 않았음.

16) 노년부양비와 관련한 상관계수로 해석이 애매한 측면이 있다. 높은 노년부양비는 보험수요의 자극요인이 될 수도 있으나 동시에 저축여력의 하락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가능한한 전체부양비의 개념을 사용하여 저축여력의 역수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Panel B. 보험수요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의 상관계수

구 분	생명보험료	생명보험 침투도	손해보험료	손해보험 침투도
경상GDP	0.9797 ***	0.3559 ***	0.9801 ***	-0.2216 *
1인당 GDP	-0.1004	0.1323	-0.0924	0.1595
유년부양비	-0.0843	0.0301	-0.0862	0.2779 **
노인부양비	-0.4565 ***	-0.1783	-0.4480 ***	-0.1471
기대여명	0.3976 ***	0.1430	0.3965 ***	-0.2446 *
인플레이션	-0.0585	-0.2317 *	-0.0748	-0.0190
사회보장지출	-0.6017 ***	-0.3170 **	-0.5986 ***	-0.2024
해외 교역량	0.9202 ***	0.3627 ***	0.9306 ***	-0.1178
경상GDP 대비 총의료비지출	-0.1826	0.0845	-0.1516	0.5767 ***
경상GDP 대비 민간의료비지출	0.0969	0.0763	0.1313	0.5407 ***
자동차보유대수	-0.3407 **	-0.3142 **	-0.3137 **	0.2791 *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나. 추정 결과

앞의 국제 비교에 포함된 21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국을 대상으로 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분석대상 국가의 최근 특성이 향후 10년 동안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흐름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 우선 횡단면 분석을 위해 자료를 통합(pooling)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자유도의 희생이 큰 Fixed Effect 모형보다는 Random Effect 모형에 근거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¹⁷⁾. 특히, 본 계량분석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은 종속변수가 보험시장 규모보다는 보험침투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즉, 경제규모 대비 보험료의 상대적 규모의 변화에 설명력이 있는가를 살펴본다는 점이다. 보험료 자체도 종속변수로 적용한 모형도 제시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해

17) 자유도의 목록으로 5개년 평균치를 활용한 패널분석에서는 F-test, Hausman Test를 통해 모형을 선택하기보다는 Pooled OLS Random Effects 모형을 모두 활용하여 그 결과로 소지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를 높이기 위한 보조적인 분석임을 밝힌다. 더불어 사전적인 모형설정 과정에서 기대여명(life expectancy)은 소득수준인 GDP와 마찬가지로 종속변수와 상관성이 매우 높아 다른 변수의 방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된 OECD 회원국들의 경우 대부분 선진국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매우 작은 값만큼 규칙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확률변수로서 의미를 가지기 힘들어 독립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이제 구체적인 실증분석결과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험 종목별 분석모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7>과 같다. 각 모형에 삽입된 설명변수는 선행연구 및 독립변수 사이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고려하여 선택하였으며, Pooled OLS와 Random Effects Model 모형에서 회귀계수의 방향성이 안정적으로 동일한 패턴을 가지도록 모형을 설정(specification)하였다.

통합(pooling)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횡단면 분석과 패널 모형은 성격상 상호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횡단면 분석은 보험침투도가 국가간 환경 변수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패널 분석에서는 국가별로 나타나는 시계열 상의 공통적인 특성이 중요한 설명변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소득(1인당 국민소득)을 설명변수로 포함함에 있어서 Pooled OLS에 의한 횡단면 분석에서는 국가간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달러기준 1인당 국민소득을 사용했으며 패널분석에서는 해당 국가의 다른 시계열 자료와 관계를 중시하여 해당국가 통화 기준의 1인당 경상GDP를 사용하였다¹⁸⁾.

<표 II-7>은 보험종목과 이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변수들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소득 관련 변수는 분석모형이 pooling된 자료를 사용하는가 또는 패널 자료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른 통화기준의 변수를 적용하였다.

18) II장, III장의 모형분석에서 1인당GDP와 같은 수준변수는 자연로그를 취하여 사용하였다.

<표 II-7> OECD 주요국의 보험수요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종목별 모형

보험종목	설명변수
생명보험전체	1인당GDP, 부양비율, 민간의료비지출/경상GDP, 총의료비지출/경상GDP, 사회보장지출/경상GDP, 인플레이션
화재보험	1인당GDP, (전통손해보험료-화재보험료)/경상GDP, 더미변수(영국)
자동차보험	자동차보유대수, 1인당GDP, 민간의료비지출/경상GDP, (전통손해보험료-자동차보험료)/경상GDP
해상보험	1인당GDP, 교역량/GDP, (전통손해보험료-해상보험료)/경상GDP, 더미변수(영국, 노르웨이)
보증보험	1인당GDP, (전통손해보험료-보증보험료)/경상GDP, 더미변수(영국)
배상책임보험	1인당GDP, 민간의료비지출/경상GDP, 중등교육취학률 (전체손해보험료-배상책임보험료)/경상GDP,
상해건강보험	1인당GDP, 민간의료비지출/경상GDP, 총의료비지출/경상GDP, 노년부양비, 사회보장지출/경상GDP, (전체손해보험료-상해건강보험료)/경상GDP

1) 생명보험

생명보험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인 <표 II-8>을 보면 Pooled OLS와 패널분석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의료비지출 부담이 높을수록 생명보험의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정부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지출이 클수록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의 수요와 관련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산한 총의료비보다는 민간의료비가 생명보험 수요와 관련이 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민간 의료비보다는 총의료비지출의 설명력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한편 패널 분석에서는 독립변수들 상호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까지 나타나 민간의료비지출을 설명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사회보장비와 의료비를 제외하고는 물가상승률이 낮을수록 생명보험의 수요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물가의 안정이 장기 상품의 수요에 유리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표 II-8> 생명보험료 침투도가 종속변수인 모형

설명변수	생명보험료 침투도	
	Pooled OLS	Random Effects
절편	0.0461 (0.69)	0.0260 (0.52)
1인당GDP	0.004 (0.66)	-0.0001 (-0.01)
부양비율	-0.0007 (-0.53)	0.0003 (0.32)
민간의료비지출 /경상GDP	-0.0035 (-0.92)	
총의료비지출 /경상GDP	0.0100 (3.40) ***	0.0056 (3.41) ***
사회보장지출 /경상GDP	-0.0022 (-2.25) **	-0.0017 (-2.69) ***
인플레이션	-0.0020 (-1.72) *	-0.0029 (-2.72) **
관측치수(N)	55	55
결정계수(R^2)	0.9273	0.3998

주: 1) 괄호 안은 t-값을 나타냄.

2) *,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1인당 GDP는 Pooled OLS의 경우 달러 기준, 패널분석은 자국통화 경상 기준임.

생명보험은 침투도의 변화와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연도별 자료 확보가 용이하여 연도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결측치가 없는 균형패널(balanced panel)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분석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테스트하기 위해 시계열의 기간은 1991~2001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연도별 시계열 상의 누락이 많은 민간의료비 변수를 제외하고 분석을 실행하였다. <표 II-9>의 결과를 보면 의료비지출, 사회보장비지출 및 물가상승률과 관련해서는 5년 평균 자료와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타났다¹⁹⁾.

19) 연도별 자료를 바탕으로 F-test와 Hausman test의 점검결과 Fixed effects 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본 보고서의 3가지 모형추정결과로 모두 소개하였다.

그러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한 결과에서는 1인당GDP가 높아짐에 따라 생명보험의 침투도가 상승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험수요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험수요의 변수로 침투도(=보험료/경상GDP)를 적용하였으므로 GDP의 성장률보다 생명보험의 성장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독립변수인 소득수준이 증가하면 종속변수에서 분모 부분인 GDP는 상승하기 때문에 종속변수는 감소하여 소득수준에 대한 회귀계수가 구조적으로 음(-)의 값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귀계수가 양(+의 값을 보인 것은 GDP의 성장률에 비해 생명보험의 성장률이 보다 크기 때문이다.

<표 II-9> 연도별 생명보험 침투도가 종속변수인 모형

설명변수	Pooled OLS	Fixed Effects	Random Effects
절편	0.0459 (2.01) ***	-0.0080 (-0.22)	0.0869 (2.84) ***
1인당GDP	0.0007 (2.95) ***	0.0004 (1.74) *	0.0005 (2.17) **
부양비율	0.0004 (1.04)	-0.0020 (-3.75) ***	-0.0019 (-3.74) ***
총의료비지출 /경상GDP	-0.1505 (-1.44)	1.5401 (8.61) ***	1.3414 (7.98) ***
사회보장지출 /경상GDP	-0.0011 (-4.00) ***	-0.0037 (-7.74) ***	-0.0032 (-7.24) ***
인플레이션	-0.0032 (-3.43) ***	-0.0011 (-2.75)	-0.0012 (-2.85) ***
관측치수(N)	220	220	220
결정계수(R^2)	0.1624	0.8868	0.4362
F-test		64.98 (0.00) ***	
Hausman Test			11.80 (0.04) **

주: 1) 절편 및 계수 밑의 괄호 안은 t-값을 나타내며, F-test와 Hausman Test 통계량 밑의 괄호 안은 p-값을 나타냄.

2) *,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3) 1인당 GDP는 Pooled OLS의 경우 달러 기준, 패널분석은 자국통화 경상 기준임.

또한 부양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던 것이 연도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은 부양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구매력의 감소로 인해 보험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부양비율이 높으면 저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수요도 증가하여 양(+)의 회귀계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부양비율이 증가하면 저축여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보험구매력이 감소하여 음(-)의 회귀계수가 나올 가능성도 상존한다. 향후 국내 인구구조의 변동추이를 고려하면 유년부양비율은 감소하고 노년부양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저축에 대한 수요가 보험구매로 이어지는 부분과 임금소득자의 상대적 감소로 인해 보험구매력의 감소로 이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상쇄되는가에 따라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된다.

2) 손해보험

손해보험의 경우 규모에 비해 종목이 많아 생명보험의 경우보다 변수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파악해내기가 어려웠다. 특히, 변수간의 국가간 차이가 주요 설명변수가 되는 Pooled OLS와 국가별 시계열의 특징을 중시하는 패널 분석 사이에 설명력이 변수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해서도 종목별 추정결과를 소개하면서 설명하고자 했다.

또한 손해보험에 분석에 있어서는 손해보험 전체의 발전 정도 또는 전통손해보험의 발전 정도를 설명변수로 포함하기 위해 해당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보험의 침투도를 설명변수로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가) 화재보험

<표 II-10>은 화재보험에 대한 분석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화재보험료 침투도가 종속변수인 모형에서는 Pooled OLS로 추정한 결과에서 1

인당 GDP가 양(+)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Random Effects 모형으로 추정된 결과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andom Effects 모형에 대한 결과에 무게를 둔다면, 이는 GDP성장률에 비해 화재보험의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화재보험료 자체를 종속변수로 적용한 모형에서 1인당GDP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이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²⁰⁾. 화재보험료를 제외한 손해보험 침투도에 대한 회귀계수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화재보험의 경우 주로 아파트나 공장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 전체의 침투도가 화재보험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영국의 경우 통념상 손해보험으로 커버하는 부분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커서 침투도가 종속변수인 모형에서 더미변수를 삽입하였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 수준 1%에서 유의한 회귀계수를 나타냈다.

<표 II-10> 화재보험 침투도 및 화재보험료가 종속변수인 모형

설명변수	화재보험 침투도		화재보험료
	Pooled OLS	Random Effects	Random Effects
절편	-0.0032 (-1.11)	0.0060 (5.54) ***	-4.2645 (-6.49) ***
1인당 GDP	0.0030 (3.31) ***	-0.0002 (-0.79)	0.9379 (19.63) ***
(전통손해보험료 - 화재보험료)/경상GDP	0.0002 (0.16)	-0.0004 (-0.94)	-0.0929 (-1.30)
더미변수 (영국)	0.0074 (6.30) ***		
관측치수(N)	60	60	60
결정계수(R^2)	0.4692	0.0212	0.8787

주: 1) 괄호 안은 t-값을 나타냄.

2) *,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1인당 GDP는 Pooled OLS의 경우 달러 기준, 패널분석은 자국통화 경상 기준임.

20) 화재보험의 침투도는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가별로 볼 때 소득의 증가에 따라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자동차보험

이제 손해보험 종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자. <표 II-11>에는 자동차보험료 침투도 및 자동차 1대당 보험료를 종속변수로 하여 Pooled OLS와 Random Effects모형을 통해 추정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침투도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 논리적으로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 1인당 자동차보유대수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Pooled OLS와 Random Effects모형 모두에서 보험수요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자동차 대당 보험료가 종속변수인 모형에서 1인당 자동차보유대수는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 음(-)의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침투도가 종속변수인 모형에서 소득수준의 대용치로 사용된 1인당GDP는 음(-)의 값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역시 GDP성장률보다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자동차 대당 보험료가 종속변수인 모형을 보면 1인당GDP는 양(+)의 값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²¹⁾. 생명보험 분야가 보험료 침투도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 소득수준이 양(+)의 상관성을 보인 것에 반하는 결과로서 자동차보험은 생명보험에 비해 소득탄성치가 낮음을 의미한다. 자동차보험료를 제외한 손해보험 침투도를 모형에 추가한 결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 전반의 성장이 자동차보험을 견인하는 효과도 일정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손해보험산업이 전반적으로 발전한 경우 자동차보험시장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21) 자동차보험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대당 보험료가 높을 것이나 소득만큼 상승하지 않을 경우 침투도는 하락하게 된다.

<표 II-11> 자동차보험 침투도 및 자동차 대당 보험료가 종속변수인 모형

설명변수	자동차보험 침투도		자동차 대당 보험료	
	Pooled OLS	Random Effects	Pooled OLS	Random Effects
절편	-0.0043 (-0.31)	-0.0262 (-1.72) *	-10.4416 (-48.56) ***	-10.5706 (-44.40) ***
1인당자동차보유대수	0.0038 (1.70) *	0.0053 (2.12) **	-0.0015 (-3.05) ***	-0.0011 (-2.23) **
1인당 GDP	-0.0040 (-3.95) ***	-0.0008 (-2.49) **	0.9089 (47.34) ***	0.9091 (31.96) ***
민간의료비지출 /경상GDP	0.0010 (3.80) ***	0.0002 (0.56)	-0.0023 (-0.07)	-0.0206 (-0.61)
(전통손해보험료-자동차 보험료)/경상GDP	0.1418 (3.25) ***	0.1191 (2.18) **		
관측치수(N)	49	49	49	49
결정계수(R^2)	0.5843	0.3890	0.9841	0.9813

주: 1) 괄호 안은 t-값을 나타냄.

2) *,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1인당 GDP는 Pooled OLS의 경우 달러 기준, 패널분석은 자국통화 경상 기준임.

다) 해상보험

해상보험의 경우 각 국가별로 해상교역의 발전 정도가 매우 상이하므로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모형설정이 매우 어려웠다. 또한 국가별로도 영국과 노르웨이는 교역량이나 경제규모 대비 해상보험이 크게 발달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들과의 정상적인 비교가 어려워 더미변수를 취하였다. <표 II-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Pooled OLS와 Random Effects 모형 사이에 회귀계수의 부호가 바뀌어 모형이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OECD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결과에서는 뚜렷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 해상보험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해상보험료 시계열 자체의 추이로부터 미래 전망을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12> 해상보험 침투도 및 해상보험료가 종속변수인 모형

설명변수	해상보험 침투도		해상보험료
	Pooled OLS	Random Effects	Pooled OLS
절편	0.0038 (2.32) **	0.0021 (2.39) **	-0.9715 (-0.31)
1인당GDP	-0.0001 (-0.21)	0.0001 (0.28)	
GDP	-0.0001 (-1.85) *		0.1246 (0.20)
교역량/경상GDP	0.0439 (4.52) ***	-0.0699 (-2.83) ***	
교역량			0.4589 (1.03)
(전통손해보험료- 해상보험료)/경상GDP	-0.0001 (-0.34)	0.0001 (0.42)	
더미변수 (영국, 노르웨이)	0.0053 (16.22) ***		
관측치수(N)	60	60	60
결정계수(R^2)	0.8477	0.1229	0.9926

주: 1) 괄호 안은 t-값을 나타냄.

2) *,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1인당 GDP는 Pooled OLS의 경우 달러 기준, 패널분석은 자국통화 경상 기준임.

라) 보증보험

보증보험의 경우에도 취급하는 상품의 성격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형설정에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소득수준과 보증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의 침투도를 독립변수로 적용한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보증보험료 자체를 종속변수로 적용한 모형에서 GDP 수준의 성장과 함께 보증보험 보험료 규모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투도가 종속변수인 모형에서 1인당 GDP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보증보험

의 경우에도 GDP가 성장하는 속도보다는 더딘 속도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증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침투도의 회귀계수가 전혀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보증보험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증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 전체의 침투도가 보증보험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화재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국을 더미 변수로 추가하였으며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났다.

<표 II-13> 보증보험 침투도 및 보증보험료가 종속변수인 모형

설명변수	보증보험 침투도		보증보험료
	Pooled OLS	Random Effects	Random Effects
절편	-0.0004 (-0.54)	0.0003 (0.71)	-6.5490 (-4.26) ***
GDP			0.9099 (8.15) ***
1인당GDP	-0.0002 (-1.25)	-0.0001 (-1.28)	
(전통손해보험료 -보증보험료)/경상GDP	0.0000 (-0.14)	0.0001 (0.49)	0.1765 (0.73)
더미변수 (영국)	0.0039 (18.09) ***		
관측치수(N)	57	57	57
결정계수(R^2)	0.8641	0.0382	0.5602

주: 1) 괄호 안은 t-값을 나타냄.

2) *,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1인당 GDP는 Pooled OLS의 경우 달러 기준, 패널분석은 자국통화 경상 기준임.

마)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일반영업배상, 전문인, 생산물, 근로자재해보상 등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모형설정 시 일반적 요인을 포착하기 위해 GDP, 교육수준,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의 침투도를 독립변수로 적용하였다. 배상책임보험 역시 1인당 GDP는 보험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다만 GDP 전체 수준의 향상은 배상책임보험료와 양(+)의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책임보험의 성장이 GDP 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다른 손해 보험 종목과 동일하다. 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 침투도의 회귀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손해보험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할 경우 배상책임보험의 수요를 견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교육수준의 대용변수로서 중등교육 취학률을 적용하였는데, 많은 관련 선행연구에서 교육수준은 위험에 대한 인식의 차이 혹은 위험회피도를 반영하는 변수로서 사용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의 침투도가 종속변수인 모형의 결과를 보면 Pooled OLS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Random Effects모형에서는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나타냄으로써 교육수준이 높아 위험회피도가 높아질수록 침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상책임보험료 자체가 종속변수인 모형에서는 양(+)의 계수값을 보일 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II-14> 배상책임보험 침투도 및 배상책임보험료가 종속변수인 모형

설명변수	배상책임보험 침투도		배상책임보험료
	Pooled OLS	Random Effects	Random Effects
절편	-0.0022 (-0.75)	-0.0006 (-0.37)	-13.0569 (-4.69) ***
GDP			1.5067 (6.76) ***
1인당GDP	0.0001 (0.09)	-0.0004 (-1.23)	
민간의료비지출 /경상GDP	-0.0003 (-1.30)	0.0000 (0.10)	-0.1038 (-1.07)
(전체손해보험료 -책임보험료)/경상GDP	0.1266 (3.35) ***		
중등교육취학률	0.0000 (0.87)	0.0000 (1.73) *	0.0001 (0.02)
관측치수(N)	50	50	50
결정계수(R^2)	0.2454	0.1128	0.9908

주: 1) 괄호 안은 t-값을 나타냄.

2) *,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1인당 GDP는 Pooled OLS의 경우 달러 기준, 패널분석은 자국통화 경상 기준임.

바) 상해건강보험

상해건강보험은 생명보험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모형설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보험료 침투도 및 보험료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 모두에서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낸 변수는 민간의료비지출로 나타났다. 즉, 민간의료비지출의 부담이 클수록 보험의 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험료가 종속변수인 모형을 보면 GDP의 회귀계수가 양(+)의 값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GDP의 성장에 따라 상해건강보험시장도 확대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을 시사한다.

<표 II-15> 상해건강보험 침투도 및 상해건강보험료가 종속변수인 모형

설명변수	상해건강보험 침투도		상해건강보험료
	Pooled OLS	Random Effects	Random Effects
절편	-0.0122 (-1.68) *	-0.0055 (-0.86)	-7.7711 (-5.08) ***
1인당GDP	0.0024 (1.32)	0.0001 (0.20)	
GDP			1.0663 (10.76) ***
민간의료비지출/ 경상GDP	0.0029 (3.40) ***	0.0029 (3.40) ***	0.1901 (1.92) *
총의료비지출/ 경상GDP	0.0003 (0.41)	0.0003 (0.45)	0.0717 (1.03)
노년부양비	0.0001 (0.38)	0.0001 (0.42)	0.0023 (0.08)
사회보장지출/ 경상GDP	6.3508 (0.85)	4.4249 (0.40)	1226.8300 (0.73)
(전체손해보험료 - 건강상해보험료)/경상GDP	0.0271 (0.38)	0.0788 (0.85)	21.4932 (1.77) *
관측치수(N)	55	55	55
결정계수(R^2)	0.6337	0.4769	0.8254

주: 1) 괄호 안은 t-값을 나타냄.

2) *,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1인당 GDP는 Pooled OLS의 경우 달러 기준, 패널분석은 자국통화 경상 기준임.

다. 의료비 결정요인 분석결과

보험환경에는 인구구조, 경제성장, 자동차, 의료비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는 통계기관에 의해 미래 추이가 추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경제성장과 자동차보유대수를 국가별로 추정하는 것은 본 보고서의 연구 영역에서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환경 변수 중 의료비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만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의료비지출이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생명보험 수요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을 통해 의료비지출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표 II-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Pooled OLS에서는 1인당GDP와 기대여명이 양(+)¹⁾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선진국일수록 1인당GDP와 기대여명이 클 것이고 정부차원에서의 의료비지출 및 민간의료비지출이 증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패널모형(random effects model)에서는 노년부양비와 기대여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²⁾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미루어 선진국일수록 노년부양비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안정적으로 GDP가 증가함과 동시에 노년부양비와 기대여명이 길어지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비지출은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생명보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표 II-16> 총의료비지출이 종속변수인 모형

설명변수	총의료비지출	
	Pooled OLS	Random Effects
절편	-14.1202 (-1.60)	-6.0307 (-1.08)
1인당GDP	0.0714 (2.54) **	0.1638 (0.75)
노년부양비	-0.0859 (-1.09)	0.1736 (1.96) *
유년부양비	0.0967 (1.41)	0.0437 (0.51)
기대여명	0.2597 (2.27) **	0.1285 (1.89) *
관측치수(N)	55	55
결정계수(R^2)	0.2522	0.1796

주: 1) 괄호 안은 t-값을 나타냄.

2) *,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1인당 GDP는 Pooled OLS의 경우 달러 기준, 패널분석은 자국통화 경상 기준임.

III. 우리나라 보험산업 주요지표 중장기 전망

제II장은 선진국들의 최근 보험환경 및 시장의 변화를 검토하고 종목별 보험료의 규모와 보험환경 사이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향후 보험시장 여건은 금융시장의 성장, 고령화에 따른 보험 수요 확대 등으로 성장 환경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Pooled OLS와 패널 분석을 통해서 선진국의 보험수요와 환경 사이의 계량적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보험 수요 방정식을 추정하는데 참조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

이 장은 우리나라의 보험산업 환경과 시장규모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논의에 앞서 본 연구의 한계를 미리 설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 보험산업과 관련하여 10년 장기 전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계열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을 밝힌다. 또한 경제 및 금융시장의 경우 구조변화가 잦아 일정한 장기 추세를 잡아내는 것도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장기 전망의 계량적 타당성을 검증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확보 가능한 자료로부터 추정된 계수와 일정한 미래에 대한 가정 등을 이용하여 장기전망 작업을 수행하는 선에서 연구를 마무리했음을 밝혀둔다.

제1절에서는 국내보험시장 전망을 위해 사용할 데이터와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하고, 다음 제2절에서는 인구구조, 경제성장, 의료비 등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변수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제2절에서 실시된 환경변수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험 종목별로 중장기전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자료 및 분석 방법

본 장은 우리나라의 보험환경 및 종목별 보험수요를 전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는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통계지표를 기초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구조 및 노동력과 관련된 지표는 통계청, 그리고 경제성장 관련 자료는 한국은행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만, 의료비 자료의 경우 일관된 기준의 시계열 확보하기가 어려워 OECD 통계를 이용하였다. 인구구조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2050년까지의 인구추계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잠재성장의 개념을 이용하였다. 잠재성장률은 총생산함수를 바탕으로 자본스톡, 노동력 등 비교적 추정이 용이한 생산요소와 이들에 의해 설명이 어려운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따라서 잠재성장률은 이들 요소에 대한 전망과 인위적인 가정을 더해 산출되었다. 의료비의 경우 총의료비에 대한 단일방정식과 더불어 공공의료와 관련한 국가 정책에 일정한 가정을 부과하여 추정에 활용하였다.

보험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종속변수로 하고 보험환경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개별방정식을 통해 방정식의 모수를 추정하였으며, 여기에 전절에서 산출한 보험환경에 대한 전망치를 대입함으로써 미래의 보험료를 예측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2. 주요 경제 및 환경변수 중장기 전망

가.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가 보험환경의 전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구구조 자체의 변화가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험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노후 및 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구조에서 노인인구의 비중이나 은퇴연령 인구의 비중 등은 보험수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인구구조는 기본적인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보험환경 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생산가능인구의 변화는 경제성장을 위한 인적자본을 결정짓는 핵심변수이며, 생산가능인구 대비 유년 및 노년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부양비는 저축률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알려져 있다. 저축률은 투자에 영향을 미치며 다시 투자는 자본스톡의 규모에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보험환경을 전망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향후 2050년까지 인구구조 및 규모에 대한 추계를 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인구구조에 대한 별도의 전망을 실시할 필요는 없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의 의미를 보험수요와 관련지어 파악해보고자 한다.

첫째, 전체부양비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²²⁾. <그림 III-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현재 유년부양비는 하락하고 노년부양비는 상승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유년부양비의 하락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전체 부양비가 하락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6년 전체부양비가 36.6%에 이를 때까지 지속되며, 이후 노년부양비의 상승속도가 유년부양비를 추월하면서 전체 부양비가 상승세로 돌아서게 된다. 따라서 본보고서의 전망 기간인 2005~2015년은 사실상 부양비가 하락하는 마지막 시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10년 동안의 부양비 변화는 노년부양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유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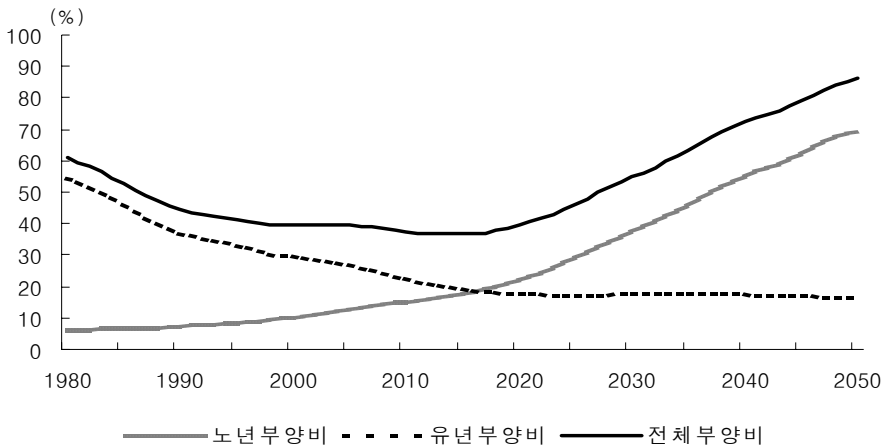
22) 전체부양비 = 유년부양비 + 노년부양비

유년부양비 = $(0 \sim 14 \text{세인구}) / (15 \sim 64 \text{세인구}) \times 100$

노년부양비 = $(65 \text{세이상인구}) / (15 \sim 64 \text{세인구}) \times 100$

부양비의 하락으로 전체 부양비가 하락하면서 저축여력이 확대되는 특징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10년 동안 보험이나 증권 등 금융산업이 여타의 부문에 비해 급속히 팽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I-1> 우리나라의 부양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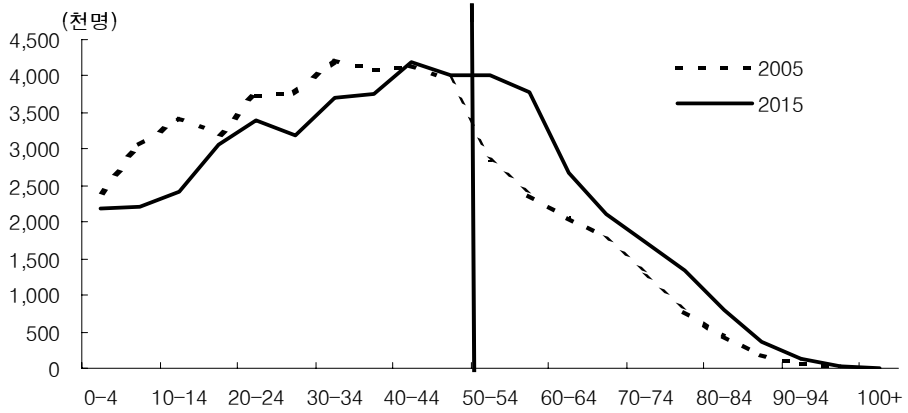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둘째로, 연령별 인구변화도 보험수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 뿐만 아니라 1975년 생까지를 포괄하는 약 20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에 대한 밀집도가 매우 높다²³⁾. 문제는 2005년에 1955년생이 50대, 즉 은퇴연령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연령 진입은 은퇴연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향후 10년 동안 50대 인구는 2005년 전체의 10.9%에서 2015년 15.9%로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은퇴와 관련된 각종 보험수요, 즉 노년의 연금이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3) 보험개발원 주간보험이슈 제79호에 따르면 인구가 가장 많은 4개 연령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3%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그림 III-2>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2005~2015년)



자료: 통계청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부문의 상대적인 빠른 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은퇴수요의 확대가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를 크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역량에 따라서는 고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경제성장

경제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경제내의 모든 산업을 전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보험산업에도 마찬가지이다.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개념은 잠재GDP와 이의 성장률을 의미하는 잠재경제성장률이다. 따라서 본고는 일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해 보았다. 잠재성장률의 추정은 아래와 같이 Cobb-Douglas 1차 동차 함수를 가정하였다.

$$Y_t = A_t L_t^\alpha K_t^\beta \quad \alpha + \beta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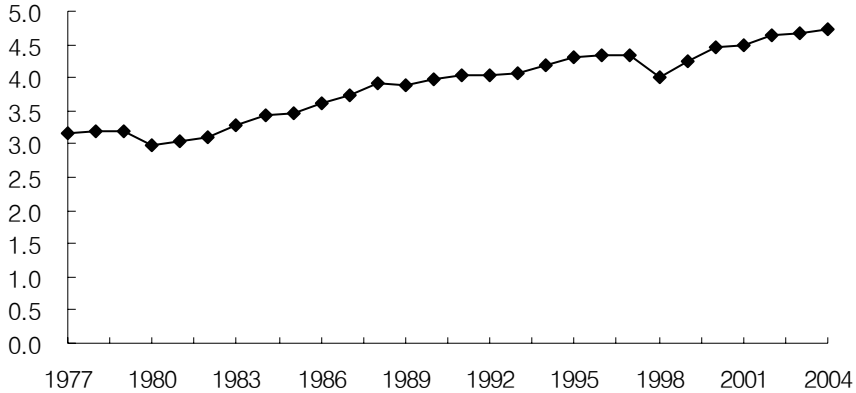
Y는 잠재GDP, A는 총요소생산성, L은 노동력, K는 자본스톡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에서 노동력은 경제활동인구를 사용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에 경제활동참가율을 곱한 개념이다²⁴⁾. 자본스톡은 경제활동인구처럼 공식적인 경제지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일정한 가정에 의해서 특정시점의 자본량을 산출하고 이후 시점의 자본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자본의 추가를 총고정자본형성(설비투자+건설투자+무형자산형성)과 일정한 수준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였다²⁵⁾. 이 보고서의 경우 통계청의 국부 자료에서 1977년 순자산액을 해당 시점의 자본량으로 가정하고 이를 해당년도의 총고정자본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2000년 기준 실질 가격으로 전환하였다.

다음으로 α 및 β 를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 이들 두 계수는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에 대한 소득분배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국민계정 상의 소득분배율이 평균적으로 노동은 0.6, 자본은 0.4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참고하여 이들 숫자를 계수로 적용하였다. 이제 잠재GDP에 대해서 자본과 노동이 설명하고 난 나머지는 총요소생산성인 A에 의해서 설명되게 된다. 총요소생산성은 <그림 III-3>과 같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로 추정되었다.

24) 실제로는 자연실업률을 적용하여 노동력을 산출하여야 하나 잠재실업률이 사실상 상수임을 감안하여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경제활동인구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25) 관련 연구들의 일반적인 자본스톡 감가상각률은 대부분 6~7%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연구는 6%를 가정하였다.

<그림 III-3>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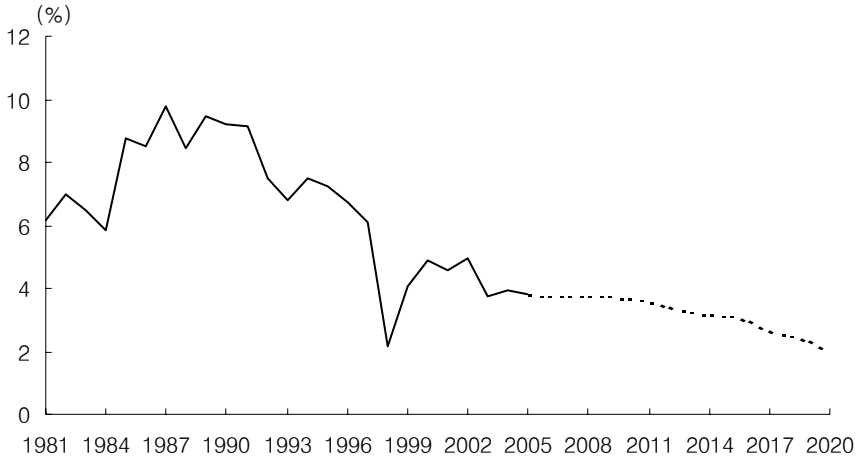


향후 잠재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 자본스톡, 그리고 노동량에 대한 전망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 이 연구는 우선 자본량은 장기적으로 저축 = 투자 = 총고정자본형성이라는 가정 하에 부양비의 변화를 기초로 저축률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규모를 산출하여 미래의 자본량을 추정하였다. 노동량은 생산가능인구의 변화에 대해 노동참가율에 일정한 가정을 더하여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은 <그림 III-3>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승세가 향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추정하였다²⁶⁾.

생산요소들의 변화에 기초한 잠재성장률의 추정과 향후 전망은 <그림 III-4>와 같다. 과거의 추이는 외환위기 당시 극심한 저투자 국면이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실제 경제성장률보다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5년 이후 4% 전후 수준을 보이다가 2010년 이후에는 3%대로 하락하고 장기적으로 2020년 경에는 2%대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었다²⁷⁾.

26) 자본스톡과 생산가능인구의 추이만을 볼 때 우리나라의 잠재성장 여건은 급속히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나, 노동참가율과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긍정적인 가정이 향후 잠재성장률의 하락 속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III-4>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이 전망



다. 의료비 및 자동차등록대수

여러 보험종목 중에서 특히 개인보험이 담보하는 위험 중 가장 주된 것은 생존, 사망, 질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에 대한 향후 전망은 질병을 담보하는 개인보험의 수요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전장의 OECD회원국에 대한 의료비 분석에서는 의료비가 소득 및 부양비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노년부양비와 국민소득을 중요 변수로 하여 의료비에 대한 방정식을 추정하였으며, 모형추정 과정에서 오차항의 자기상관의 문제는 Durbin-Watson검정을 실시한 후 Cochrane-Orcutt과정을 통해 해결하였다. 결과는 총의료비와 노년부양비 및 국민소득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향후 노년부양비가 빠

27) 보험산업 전망에는 실질성장보다는 경상성장이 중요한 변수이며 따라서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향후 2.7%(2002, 2003, 2004년의 평균)수준으로 적용하였다.

른 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비 부담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log(\text{총의료비})_t = -1.29 + 0.85\log(\text{GDP})_t + 1.15\log(\text{노년부양비})_t \quad (\text{식III-1})$$

(-2.33) (8.50) (2.95)

$$R^2 = 0.9974 \quad \rho = 0.515 \quad \text{D.W.} = 1.8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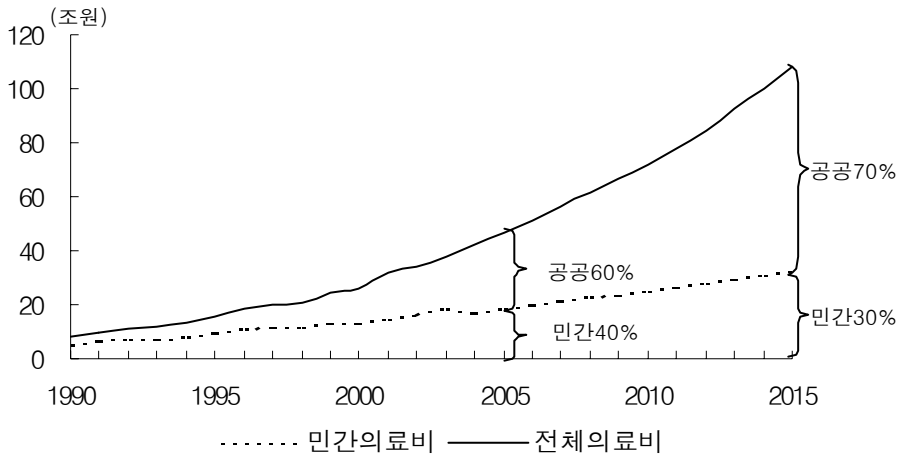
주: 1) 계수 밑의 괄호 안은 t-value를 의미함.

2) ρ 는 Cochrane-Orcutt과정의 회귀계수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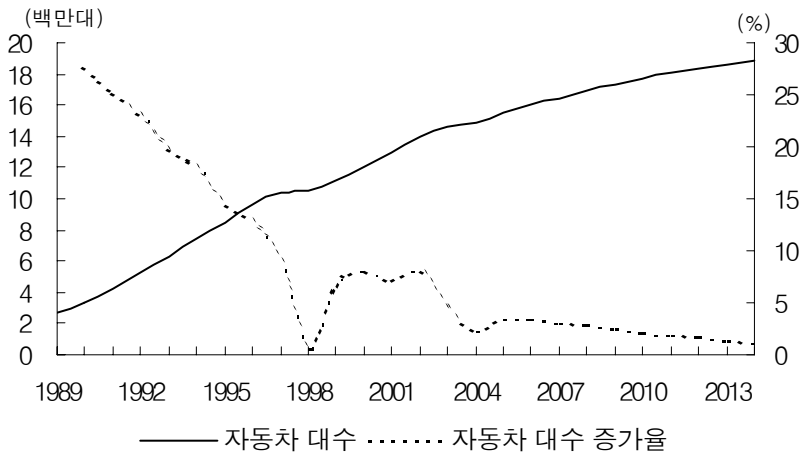
(식III-1)과 같이 모수를 추정한 후 예측을 실시한 결과 의료비는 향후 2015년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산업의 입장에서는 전체의료비에서 공적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제외한 민간의료비의 규모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공공의료비는 다분히 정책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을 변수간의 통계적 성격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는 향후 공공의료비의 비중을 2008년까지 전체 의료비의 7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나 내용을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따라서 타당성도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공공의료비의 비중이 단계적으로 70%까지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공공의료비와 민간의료비를 예측하였다.

예측결과 전체의료비는 2005~2015년 기간 중 연평균 9.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민간 의료비는 공공보험의 비중 확대에 따라 증가율이 연평균 6.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물론 민영건강보험 시장이 초보단계에 있어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림 III-5> 의료비 추이 전망



<그림 III-6> 자동차 대수 추이 전망



자동차보험의 수요를 예측함에 있어 자동차등록대수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최근 자동차시장은 심각한 침체국면을 보이면서 자동차등록대수의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증가율 둔화현상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별도의 예측 방정식을 추정하기 보다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고 있는 내부 자료를 활용하였다²⁸⁾. <그림 III-6>은 그 결과를 제시하

고 있으며 자동차보유대수는 2015년까지 약 2%대의 저조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보험산업 주요지표 중장기 전망

가. 생명보험

우선 생명보험에 대한 전체 및 종목별 전망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후 종목별 전망치에 대한 방법론과 근거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종합전망

생명보험 산업은 경상GDP 성장률의 하락, 노년부양비의 증가, 기대여명의 증가 등과 함께 금융겸업화, 은퇴시장에서의 금융기관 사이의 경쟁 등으로 임하여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향후 생명보험산업은 베이비붐 세대의 빠른 은퇴연령 편입과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자 하는 인식의 확산으로 은퇴시장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축성 보험을 주축으로 2015년까지 10년간 연평균 8.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의 종목별 성장은 은퇴를 대비한 상품수요의 확대로 연금,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저축성 보험의 수요가 생명보험의 성장을 주도하면서 개인생명보험의 성장은 연평균 8.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체보험은 2005년 도입되는 퇴직연금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연평균 9.0%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 수입보험료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은 회귀방정식이 전망할 수 있는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회귀방정식은 과거의 경제, 금융,

28)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2005. 11.

보험관련 자료로부터 각 보험지표를 전망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생명보험의 경우 생존, 사망, 질병 등의 각 생존리스크와 사망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종목사이에 경계가 모호하고 저축성 상품과 보장성 상품이 보험회사의 마케팅 전략, 정부의 과세정책, 보험설계사들의 선호에 따라 주력 판매상품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종목의 고유한 속성을 통해 얻어지는 종목별 전망은 곤란했다.

향후 2015년까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10년간 연평균 8.2% 성장하며 경상GDP 성장률을 2%p 정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약 134조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0년까지는 개인보험보다는 퇴직연금시장의 형성에 따른 단체보험 시장이 연 11.6%씩 성장하면서 비중이 확대되고, 개인보험은 국민연금을 보충하고자 하는 은퇴세대의 증가에 따라 저축성보험이 확대되면서 연평균 9.9% 성장할 것이나 이후부터는 2015년까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이 각각 6.2%와 6.5%로 하락해, 성장률의 급속한 하락이 전망된다.

<표 III-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개인보험		단체보험		생명보험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FY1990	120,333	31.3	37,397	32.8	151,729	31.7
FY1995	274,937	18.0	77,944	15.8	352,880	17.5
FY2000	403,371	8.0	117,817	8.6	521,188	8.1
FY2004	480,140	4.5	57,366	-16.5	537,506	0.8
FY2010(F)	861,815	9.9	124,995	11.6	986,809	10.1
FY2015(F)	1,164,808	6.2	171,041	6.5	1,335,849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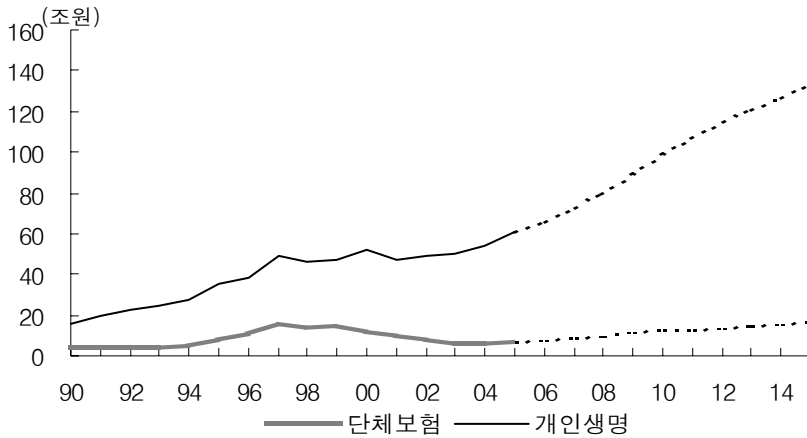
주: 성장률은 해당연도까지의 5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며, 2004년의 경우는 4년간 평균성장률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향후 경상GDP 대비 침투도를 살펴보면, 199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던 생명보험침투도가 2005년 7.4%를 저점으로 하고 2010년에는 8.7%에 달하고 2015년에는 8.9%로 확대될 것이 전망된다.

<그림 III-7>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구성추이를 살펴보면 세계혜택의 축소와 보험사의 배당보험축소정책 및 금리리스크회피를 위한 보험사들의 축소정책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비중이 축소되어 왔던 개인보험 저축성보험이 2004년 40.4%의 구성을 보였으나 2010년에는 46.5%, 2015년에는 52.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보장성 보험은 종신 및 CI보험시장의 포화와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0년에 40.8%, 2015년에는 34.9%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²⁹⁾.

29) 여기서 저축성보험은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을 말하며, 보장성보험은 사망보험을 말하기로 한다. 이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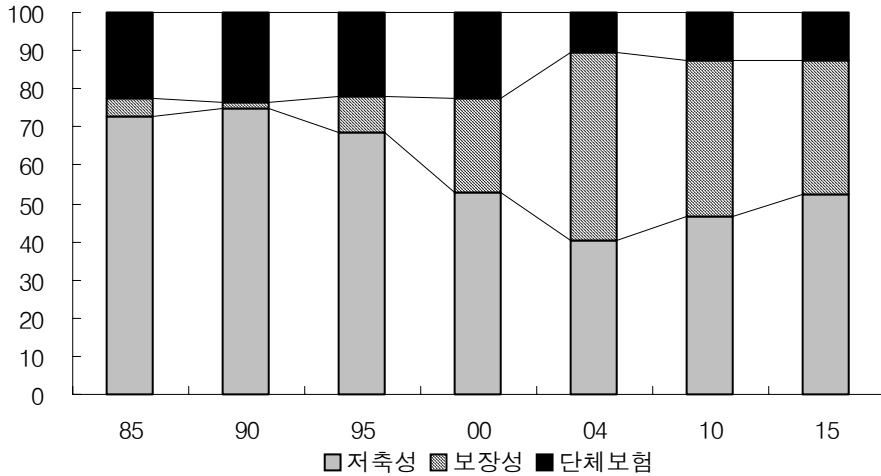
<표 III-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구성비 추이

구 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개인보험	저축성	75.0	68.7	53.0	40.4	46.5	52.3
	보장성	1.3	9.2	24.4	48.9	40.8	34.9
단체보험		23.7	22.1	22.6	10.7	12.7	12.8
생명보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8>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가) 개인보험

개인보험료 전체에 대해 방정식을 추정하여 전망한 후 종목별 비중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앞서 주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5년평균 자료를 이용한 모형의 경우 의료비지출, 사회보장지출, 및 인플레이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자료를 사용한 모형에서는 국민소득, 부양비, 의료비지출, 사회보장지출, 인플레이션 등 거의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국내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시계열모형을 설정할 때에는 이들 변수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변수 사이에는 다중공선성이 매우 커서 독립변수와 상관성이 높은 특정 변수가 나머지 독립변수를 지배하여 회귀계수가 불안정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제반 특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다음의 (식Ⅲ-2)와 같은 모형을 도출하였다.

$$\log(\text{개인생명보험료})_t = 27.33 + 0.92\log(\text{경상GDP})_t - 4.68\log(\text{부양비})_t - 1.17\log(\text{인플레이션})_t$$

(2.56) (2.54) (-2.17) (-1.17) (식Ⅲ-2)

$$R^2 = 0.9892 \quad D.W. = 1.818$$

주: 계수 밑의 괄호 안은 t-value를 의미함.

이러한 모형에 전망된 환경변수를 대입하여 개인보험의 보험료를 전망하였다. 생명보험의 개인보험은 FY2005~FY2015까지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8.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FY2010까지 5년간은 9.9%로 견조한 성장을 하는 반면, 이후 FY2015까지는 6.2%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다³⁰⁾. 개인보험은 생명보험에서 비중이 가장 큰 보험분야

로 인구의 고령화, 기대여명의 증가, 노년부양비의 증가 등에 따른 생존리스크의 지속적 확대에 은퇴세대의 증가와 은퇴대비 수요에 힘입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보험 중 저축성 보험은 개인의 저축자산을 구성하는 금융상품으로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 등의 정부정책, 수익성, 안정성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특히, 보험상품에 대한 정부의 개인세제혜택의 증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자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민감해지면서 의식 있는 보험소비자들에 의한 시장경제원리가 시장성장을 주도하기 시작하고, 경제수준도 선진국에 진입하고 인구의 노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은퇴이후의 생존리스크가 부족한 국민연금제도를 보충하는 형태로 발전될 전망이다.

사망보험은 최근까지 종신보험과 CI보험, 기타 건강보험이 보험사의 마케팅과 순수보장성보험에 대한 국민의식이 향상되면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형태로 성장되어 왔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건강보험의 의료비보장률이 꾸준히 증가해 오고 또한 유럽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지향하면서 장기적으로 의료비보장률이 70%로 증가할 경우 민영건강보험의 성장은 제한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공공정책이 확대되고 보험사들의 판매정책이 불안한 상황에서 개별종목의 성장을 모형을 통한 방정식에 의해 전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경제·사회적 변수와 보험관련 변수간 상관관계에서 도출되는 개인보험수요에 대해서 선진국수준의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수입보험료 구성비를 적용할 경우, 저축성보험은 FY2010까지 연평균

30) 2010년까지 성장률이 높은 이유는 동 기간 중 부양비의 하락속도가 크기 때문이다. 부양비의 하락폭을 5년 단위로 보면 2000년 이후 5년간 0.2%p, 2005년 이후 2.0%p, 2010년 이후에는 0.7%p로 나타나 2005~2010년 사이에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기간 중 저축여력이 크게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9%, 이후 FY2015까지는 8.8%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보장성 보험은 FY2010까지 연평균 7.0%, 이후 FY2015까지 연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³¹⁾.

<표 III-3> 개인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저축성		보장성		개인보험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FY1990	118,288	32.4	2,045	3.6	120,333	31.3
FY1995	242,510	15.4	32,426	73.8	274,937	18.0
FY2000	276,124	2.6	127,246	31.4	403,371	8.0
FY2004	217,168	-5.8	262,971	19.9	480,140	4.5
FY2010(F)	459,231	12.9	402,584	7.0	861,815	9.9
FY2015(F)	698,885	8.8	465,923	3.0	1,164,808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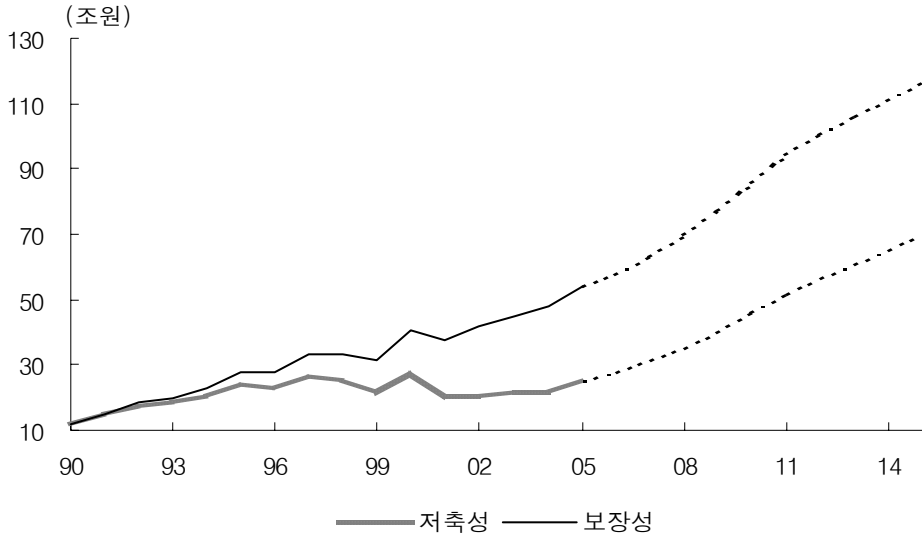
주: 성장률은 해당연도까지의 5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며, 2004년의 경우는 4개년 평균성장률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1)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사이의 비중은 공적건강보험이 발달하지 않은 미국과 크게 발달한 영국 그리고 그 중간단계인 독일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그림 III-9> 개인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단체보험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는 퇴직보험(신탁)을 대체하는 형태로 도입되나 이전의 종업원퇴직보험이나 퇴직보험과 같은 단순한 보험상품의 일종이 아닌 전 산업체 종업원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사적연금제의 한 축을 구성하는 형태로 도입된다³²⁾.

퇴직연금제 시행에 따라 매년 보험권으로 유입되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의 전망은 과거 종업원퇴직보험이 퇴직보험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참고하였으나 종업원퇴직보험이 퇴직보험으로 전환되었던 당시는 기존 종업원퇴직보험의 적립금이 해약과 함께 퇴직보험 수입보험료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과대 계상되었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는 퇴직보험이 도입되었던 경우와 여

32) 퇴직연금제도 시행이후 퇴직보험은 신규로 가입할 수 없으나, 이미 가입된 경우 향후 약5년 동안은 퇴직보험으로 인정된다.

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당시와 같은 급격한 유입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모형을 통한 전망은 곤란하므로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전망하였다. 즉, 매년 근로자증가율, 평균임금상승률, 퇴직연금 사외적립률, 각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가정을 통해 2015년까지의 보험권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유입금액을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로 나누고 2005년 월평균 임금으로 매년 퇴직적립금 규모를 추정하였다. 또한 변화된 사외적립률과 과거 추세를 고려한 가입율을 추정하고 2009년부터는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추정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퇴직적립가능금액을 추정하였다³³⁾. 그리고 퇴직적립가능금액을 퇴직보험료로 보고 초기 강세를 떨 것으로 가정한 보험권으로의 유입액을 결정하고 다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점유율을 과거추세와 장래경향을 추정함으로써 FY2015까지의 생명보험 퇴직연금보험료를 산출하였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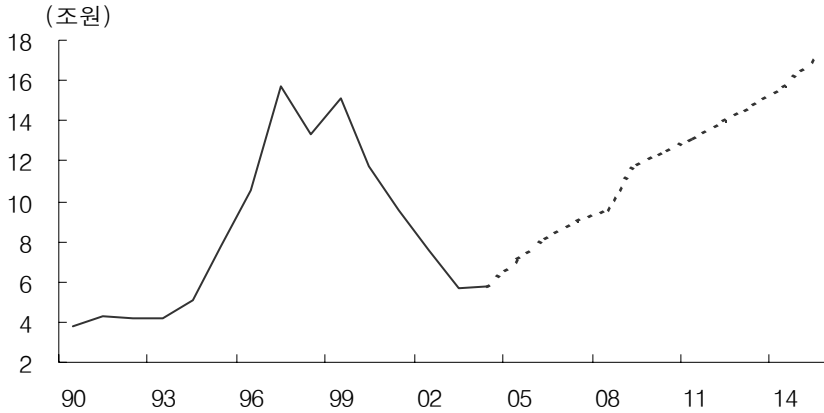
이러한 시나리오가 적용될 경우, 단체보험³⁵⁾은 FY2010까지 11.6%의 성장이 전망되며, 이후 성장여력이 감소하여 FY2015까지 6.5%로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33)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수, 월평균임금 그리고 퇴직보험 수입보험료를 통해서 가입률을 추정하면 그 규모가 90%를 상회하는 등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가입률을 실체가입률이라기보다는 노동과 보험 지표 사이의 조정계수라는 개념으로 활용하였다.

34) 은행권의 퇴직신탁을 고려할 경우 FY2004 보험과 은행의 퇴직보험 점유율은 85 : 15 수준으로 추정되나 퇴직연금의 경우 보험권의 선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로 장기적으로 65 : 35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가정을 적용하였다.

35) 일반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퇴직보험수입보험료와 일정한 비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향후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과도 이러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III-10>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손해보험

생명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선 전망의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후 종목별로 방정식의 추정 결과 등 전망의 근거를 제시하는 형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1) 종합전망

금융겸업화, 인구의 노령화,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온라인 시장 확대, 퇴직연금제 도입 등으로 향후 10년간 손해보험 산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향후 손해보험 산업은 전통적 손해보험의 성장이 정체되고, 장기손해보험 및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즉,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전통적 종목의 성장률은 정체되거나 둔화될 전망이며, 장기손해보험, 특종보험이 경상GDP 성장보다 빠른 성장률을 나타내며 손해보험 전체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경상GDP에서 장기손해보험 및 특종보험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의 노령화, 노인부양비 지출 증가,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상해, 건강 관련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즉, 장기상해보험 및 장기건강보험, 특종보험에서의 일반상해보험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또한, 방카슈랑스가 정착되고 고객의 패키지상품 선호 추세로 종합보험의 성장도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배상책임보험의 꾸준한 성장도 특종보험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 원수보험료

FY2015에 손해보험 전체 원수보험료는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어 연평균 7.2%의 성장을 시현한 결과 51조 3천 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향후 10년간 손해보험 산업은 자동차보험과 특종보험 외의 일반 손해보험의 성장이 저조한 반면, 장기손해보험은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손해보험 전체의 침투도는 2015년 3.4%를 기록할 전망이다. 즉, 자동차보험의 경우 등록대수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FY2015에는 연평균 3.6%의 성장률로 시장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나, 장기손해보험은 건강관련 시장 확대, 환급형 상품의 수요 증가로 연평균 8.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종보험은 경상GDP 보다 빠른 11.1%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이 밖에 화재, 해상, 보증보험은 4% 미만의 저성장 기조를 보일 전망이다.

<표 III-4>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화재	2,215 (18.3)	3,782 (11.3)	2,755 (-6.1)	2,937 (1.3)	3,287 (1.2)	3,445 (0.9)
해상	2,856 (11.4)	4,532 (9.7)	4,344 (-0.8)	5,071 (3.1)	6,315 (3.5)	7,520 (3.6)
보증	2,853 (43.5)	7,002 (19.7)	6,021 (-3.0)	9,017 (8.4)	10,717 (3.3)	12,781 (3.6)
특종	2,108 (11.5)	6,071 (23.6)	11,143 (12.9)	21,181 (17.4)	39,879 (11.1)	67,342 (11.0)
일반계	10,031 (18.4)	21,386 (16.3)	24,263 (2.6)	38,206 (9.5)	60,199 (7.9)	91,088 (8.6)
자동차	17,729 (31.1)	50,103 (23.1)	64,983 (5.3)	85,208 (5.6)	107,911 (4.2)	125,410 (3.1)
장기	8,136 (46.3)	37,754 (35.9)	79,341 (16.0)	108,774 (6.5)	205,288 (10.3)	296,362 (7.6)
계	35,781 (28.8)	101,673 (23.2)	168,618 (10.6)	232,189 (8.3)	373,398 (8.0)	512,861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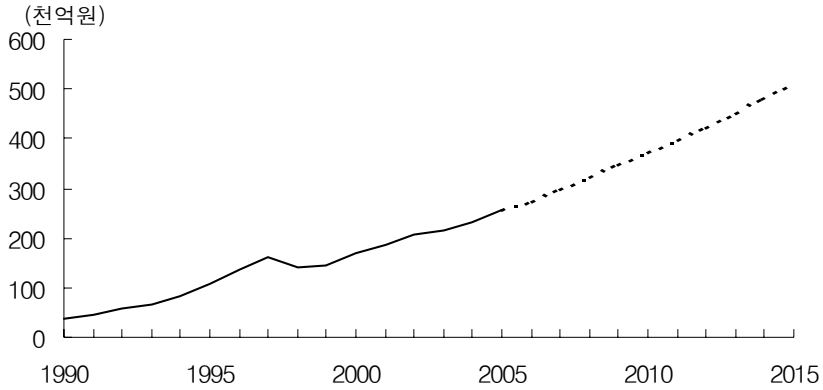
주: 1) 장기손해보험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포함임.

2) ()는 해당연도까지의 5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며, 2004년의 경우는 4년간 평균성장률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향후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 점유율이 FY2010에 55.0%, FY2015에 57.8%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관련 상품, 환급형 상품에 대한 수요 외에도 2005년 12월 도입되는 퇴직연금 실적도 감안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시장 성장 둔화, 온라인 자동차시장 확대를 비롯한 가격 경쟁 심화로 손해보험에서의 점유율이 20%대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일반 손해보험은 특종보험의 성장으로 점유율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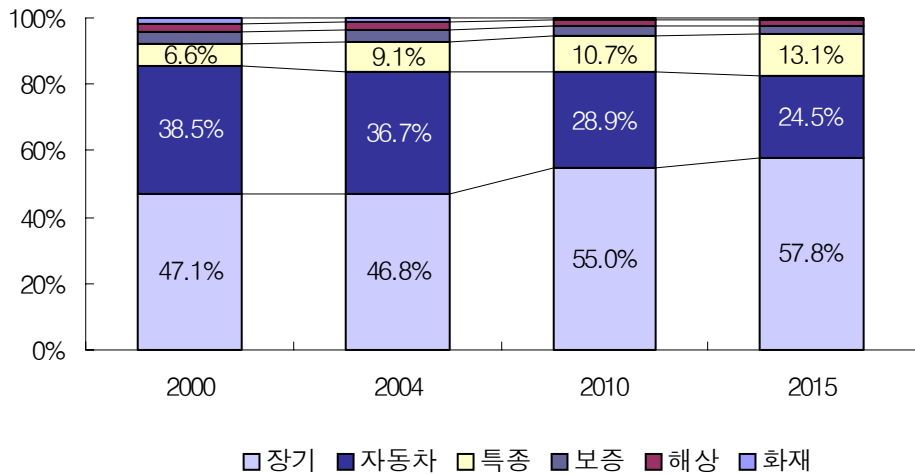
<표 III-5>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화재	6.2	3.5	1.6	1.3	0.9	0.7
해상	8.0	4.1	2.6	2.2	1.7	1.5
보증	7.9	6.4	3.6	3.9	2.9	2.5
특종	5.9	5.6	6.6	9.1	10.7	13.1
일반계	27.9	19.6	14.4	16.5	16.1	17.8
자동차	49.4	45.9	38.5	36.7	28.9	24.5
장기	22.7	34.6	47.1	46.8	55.0	5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12>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손해보험 종목별 보험료 전망

가) 화재보험

앞서 OECD 주요 회원국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수요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난 변수는 1인당GDP였다. 그러나 이 역시 Random Effects Model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 일반화하기는 힘든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 시계열 데이터로 모형을 적합한 결과에서는 GDP의 회귀계수가 양(+)의 값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보험의 경우 주로 공장이나 아파트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므로 당해연도 자본스톡의 변화를 설명변수로 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화재보험 수요 방정식 (식III-3)은 Cochrane-Orcutt과정을 통해 오차항의 자기상관을 보정하였다.

$$\log(\text{화재보험료})_t = 9.59 + 0.21\log(\text{경상GDP})_t + 4.49 \Delta\log(\text{자본스톡})_t \quad (\text{식III-3})$$

(1.51) (0.46) (2.83)

$$R^2 = 0.9729 \quad \rho = 0.838 \quad \text{D.W.} = 1.144$$

주: 1) 계수 밑의 괄호 안은 t-value를 의미함.

2) ρ 는 Cochrane-Orcutt과정에서 AR(1)의 회귀계수를 의미함.

상기의 모형을 통해 전망을 실시한 결과 FY2005~FY2015까지 향후 10년간 화재보험은 연평균 0.86%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이 화재보험의 성장률이 GDP 성장률에 미치는 못하는 것은 화재보험 시장이 이미 성숙되었거나 시장 자체의 성장속도가 근본적으로 매우 느리기 때문일 것이다. 화재보험 시장의 정체는 계약자들의 포괄담보상품 선호 추세, 기업성 물건의 경우 패키지화된 종합보험 선호로 일부 화재보험 수요가 종합보험으로 이전되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농작물재해보험의 부보 대상 확대, 풍수해보험 도입

등 재해 관련 보험 시장의 확대에 따라 화재보험의 풍수해 특약 가입률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화재보험 시장의 축소가 예상된다.

<표 III-6>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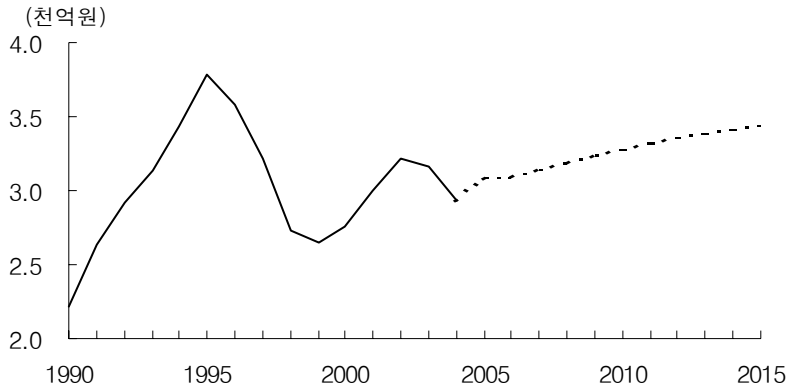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보험료	2,215	3,782	2,755	2,937	3,287	3,445
성장률	18.3	11.3	-6.1	1.3	1.2	0.9

주: 성장률은 해당연도까지의 5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며, 2004년의 경우는 4년간 평균성장률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13>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해상보험

앞서 OECD 각국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해상보험수요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추출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국내 해상보험료 시계열을 이용한 모형에서는 교역량 대비 해상보험료를 종속변수로 하고 시간 추세를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을 최종적으로 설정하여 중장기 전망

에 이용하였다. 시간 추세에 대한 회귀계수가 음(-)의 값으로 유의하다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역량이 증가할 경우 해상보험료의 증가율은 교역량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의미한다.

$$\log(\text{해상보험료}/\text{교역량})_t = 3.00 - 0.92\log(\text{time})_t \quad (\text{식 III-4})$$

(10.19) (-8.47)

$$R^2 = 0.7993 \quad \text{D.W.} = 0.555$$

주: 계수 밑의 괄호 안은 t-value를 의미함.

이와 같이 시간추세를 반영한 모형을 통해 예측을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 해상보험은 FY2005~FY2015까지 향후 10년간 연평균 3.5%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해상보험은 경상GDP 대비 교역량의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손해를 개선에 따른 효율인하 추세에 기인하여 경상GDP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해외 재보험시장의 지배력이 크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전망치와 실적치의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해상보험의 방정식은 D-W값 등을 통해서 계량적인 면으로 판단할 때도 불안정한 면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표 III-7>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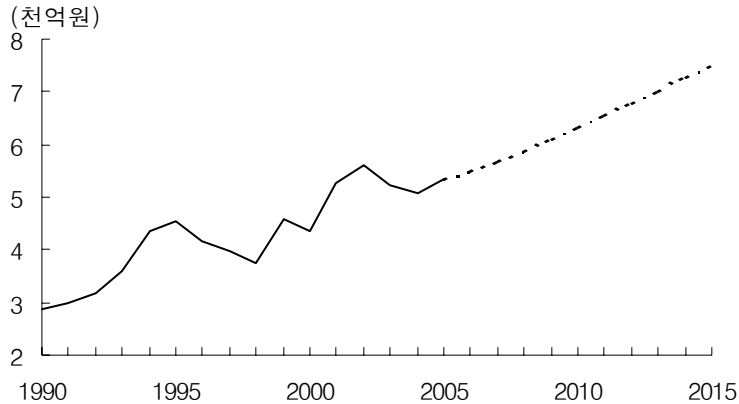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보험료	2,856	4,532	4,344	5,071	6,315	7,520
성장률	11.4	9.7	-0.8	3.1	3.5	3.6

주: 성장률은 해당연도까지의 5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며, 2004년의 경우는 4년간 평균성장률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14>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자동차보험

앞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자동차보험료 침투도를 종속변수로 한 결과에서 1인당GDP가 증가할수록 침투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상GDP의 성장속도보다 자동차보험의 성장속도가 느리다는 것이다. 또한 경상GDP가 성장한다고 할지라도 자동차 혼잡도가 높을 경우 추가적인 자동차보험소비는 증가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내 시계열을 이용한 모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여겨지는 자동차보유대수를 설명변수로 설정하되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전체 보유 자동차의 경상 가치라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경우 1998년 이후 가격자율화가 시행되어 경쟁의 심화로 인한 보험료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추가하였으며, 오차항의 자기상관 문제는 Cochrane-Orcutt과정을 통해 보정하였다.

$$\log(\text{자동차보험료})_t = 0.29 + 0.74\log(\text{자동차보유대수} \times \text{CPI})_t - 0.15\text{가격자율화더미}$$

(0.19) (9.90) (식Ⅲ-5)

(-3.08)

$R^2 = 0.9960$ $\rho = 0.662$ D.W. = 2.32

주: 1) 계수 밑의 괄호 안은 t-value를 의미함.

2) ρ 는 Cochrane-Orcutt과정에서 AR(1)의 회귀계수를 의미함.

설정된 모형의 설명력(R^2)은 매우 높았으며, 이러한 모형과 더불어 연구자들의 토론을 거쳐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에 대한 견해를 추가로 반영하여 중장기 전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향후 10년간 자동차보험은 연평균 3.57%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자동차보험의 성장률은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전망,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른 가격경쟁의 영향 등으로 FY2015에 3.1%, FY2010에 4.2%의 성장이 전망되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는 OECD 주요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 2월 등록대수가 1,500만대를 돌파하면서 과거보다 낮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즉,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은 FY2010에 2.2%, FY2015에 1.2%로 전망되었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FY2005 현재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가 참여하면서 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고 따라서, 이는 자동차보험 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온라인 자보시장의 점유율이 전망되었고, 동 시장의 가격인하 효과를 감안하여 전체 자동차보험 규모를 전망하였다. 즉, FY2004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의 6.9%를 점유하고 있는 온라인 자보시장은 2009년 약 15%, 2015년에는 약 21%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온라인 상품이 평균 10% 가량 저렴하다고 가정하여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를 전망하였다³⁶⁾. 전망 결과, FY2010 및 FY2015에 자동차보험 보험료 성장은 온라인 자보시장을 감안하지 않았

36) 현재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오프라인 상품보다 10~15% 가량 저렴하다.

을 경우에 비하여 약 1%p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자동차보험은 시장의 포화상태, 온라인 자보시장의 확대 등에 따른 가격경쟁 지속 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배상한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차량의 고급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은 향후 10년간 증가율은 낮지만 꾸준한 성장을 나타낼 전망이다.

<표 III-8>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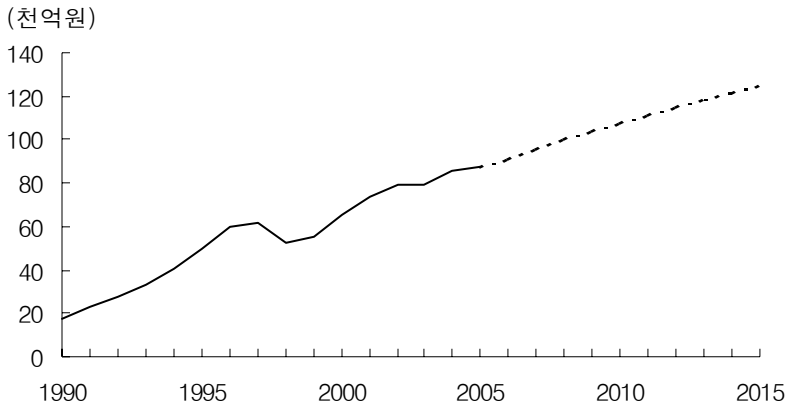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보험료	17,729	50,103	64,983	85,208	107,911	125,410
성장률	31.1	23.1	5.3	5.6	4.2	3.1

주: 성장률은 해당연도까지의 5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며, 2004년의 경우는 4년간 평균성장률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15>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보증보험

선진국 시장에 대한 분석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증보험은 취급하는 성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형설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사전적으로 선택된 변수를 포함하여 국내 시계열에 적합시켜 본 결과 경상 GDP가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위기가 발생한 1997년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추가하였고 추정과정에서 오차항의 자기상관 문제는 Cochrane-Orcutt과정을 통해 보정하였다.

$$\log(\text{보증보험료})_t = 5.36 + 0.61\log(\text{경상GDP})_t + 0.68(97\text{년 더미}) \quad (\text{식 III-6})$$

(1.76) (2.68) (6.80)

$$R^2 = 0.9395 \quad \rho = 0.567 \quad \text{D.W.} = 1.199$$

주: 1) 계수 밑의 괄호 안은 t-value를 의미함.

2) ρ 는 Cochrane-Orcutt과정에서 AR(1)의 회귀계수를 의미함.

보증보험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모형의 설명력도 90%를 상회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망을 실시한 결과 보증보험은 FY2005~FY2015까지 향후 10년간 연평균 3.43%의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보증보험 산업은 경기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종목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둔화 전망에 따라 보증보험의 성장률은 그리 높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보증보험은 IMF 외환위기 이후 이행보증보험, 신용보증, 개인의 금융성 상품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둔화 추세를 보이고, 건설투자 환경도 밝지 않은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을 중심으로 보증보험 성장률도 둔화될 전망이다.

<표 III-9> 보증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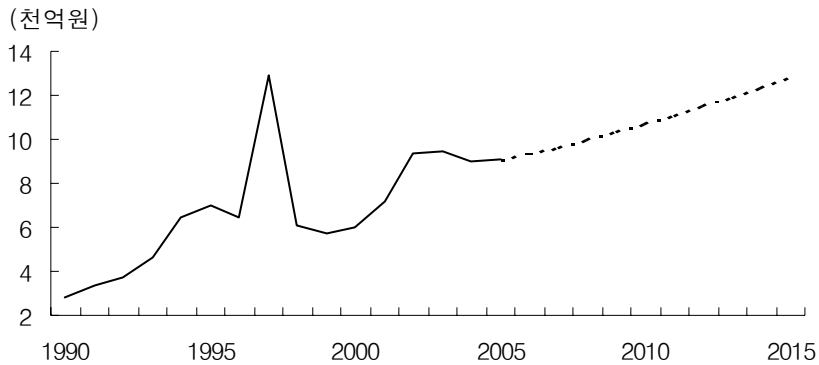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보험료	2,853	7,002	6,021	9,018	10,717	12,781
성장률	43.5	19.7	-3.0	8.4	3.3	3.6

주: 성장률은 해당연도까지의 5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며, 2004년의 경우는 4년간 평균성장률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16> 보증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마) 특종보험

국내 특종보험의 경우 OECD 통계와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분류체계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보험산업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경상GDP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OECD 국가에 대한 분석에서 질병보험의 경우 의료비지출이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최종적으로 적합한 아래의 (식III-7)

의 모형에서와 같이 경상GDP와 총의료비지출은 보험료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모형의 설명력(R^2)도 99%를 상회하였다.

$$\log(\text{특종보험료})_t = -8.24 + 0.82\log(\text{경상GDP})_t + 0.66(\text{총의료비지출}) \quad (\text{식III-7})$$

(-14.34) (3.44) (3.18)

$$R^2 = 0.9951 \quad D.W. = 1.156$$

주: 계수 밑의 괄호 안은 t-value를 의미함.

상기의 모형에 앞서 예측된 GDP와 의료비지출을 대입하여 특종보험료를 전망한 결과 향후 10년간 연평균 11.09%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시장이 빠르게 팽창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종보험은 장기손해보험과 함께 GDP 성장률보다 빠른 성장을 나타내는 종목으로서 침투도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부 종목별로 고른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고령화 진전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주5일근무제 정착 등으로 상해보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종합보험은 고객의 패키지 선호 경향, 화재보험으로부터의 수요 이전, 방카슈랑스를 통한 기업수요 증가 등에 기인하여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국제적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 밖에도 최근 도입되거나 도입을 예정에 두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의 경우 특종보험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특종보험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13년 2,100억원으로 증가하고, 풍수해보험은 현행 정부지원 대상 전체 사유시설물로 담보대상이 확대될 경우 1,2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³⁷⁾. 이러한 재해 관련 보험들은 성장성 측면에서는 플러스 영향이 예상되는 반면, 철저한 언더라이팅이 수반되지 않는 한 수익성은 불투명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7) 보험개발원, 『손보사의 자연재해보험시장 참여전략』, CEO Report 2004-11, 2004. 9.

<표 III-10>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보험료	2,108	6,071	11,143	21,180	39,879	67,342
성장률	11.5	23.6	12.9	13.7	11.1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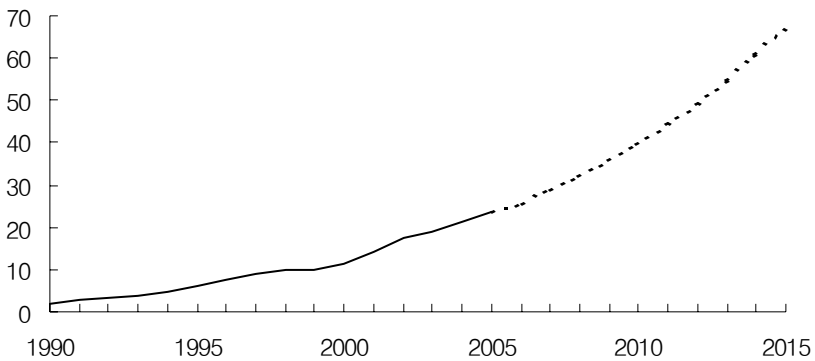
주: 성장률은 해당연도까지의 5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며, 2004년의 경우는 4년간 평균성장률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17>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천억원)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바) 장기손해보험

국내의 장기손해보험은 상해, 질병, 재물성, 운전자 등이 포함되나 이 중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비중이 가장 크므로 민간의료비를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비의 과대 증감에 따라 장기손해보험료의 예측값이 지나치게 변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와 당해 연도 민간의료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시계

열 추이의 분포를 관찰한 결과 1994년도 이후에 장기손해보험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추정과정에서 오차항의 자기상관 문제는 Cochrane-Orcutt과정을 통해 보정하였으며, 이와 같이 모형을 설정한 결과 설명력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og(\text{장기손해보험료})_t = -10.66 + 1.60\log(\text{직전및당해년도 민간의료비의 평균})_t$$

(-2.57) (6.35)

-0.20 (94년 더미) (식Ⅲ-8)
(-2.35)

$$R^2 = 0.9884 \quad \rho = 0.573 \quad D.W. = 1.452$$

주: 1) 계수 밑의 괄호 안은 t-value를 의미함.

2) ρ 는 Cochrane-Orcutt과정에서 AR(1)의 회귀계수를 의미함.

설정된 모형을 통해 예측을 실시한 결과 장기손해보험은 향후 손해보험 전체 성장을 견인하는 중목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FY2005~FY2015까지 연평균 8.9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장기손해보험은 인구구조의 변화, 노인부양비의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 등 건강 관련 보험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에 있어서 고령화가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되어 평균수명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에는 점차 사망리스크는 감소하고 생존리스크는 증대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노인부양비 지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방카슈랑스가 정착되면서 은행을 통한 장기저축성보험의 판매도 안정될 것이며, 보장성보험의 판매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손해보험은 경상GDP 성장보다 빠른 추세로 성장하면서 당분간 손해보험 산업에서의 비중을 꾸준히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표 III-11>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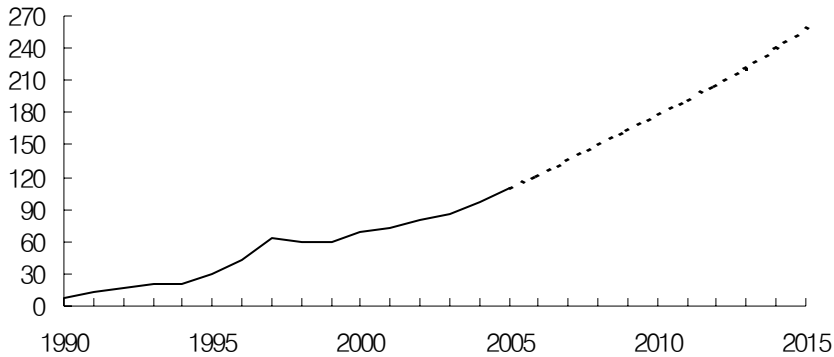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보험료	8,136	30,592	69,361	96,353	178,072	259,667
성장률	46.4	30.3	17.8	6.8	10.0	7.8

주: 성장률은 해당연도까지의 5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며, 2004년의 경우는 4년간 평균성장률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18>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천억원)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전망 종합

1) 수입보험료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저축/투자형 상품, 은퇴 대비의 수요, 건강 관련 상품 수요의 확대와 재난 등 부보대상의 확대에 의하여 전반

우리나라 보험산업 주요지표 중장기 전망101

적인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FY2010까지는 생명보험이 변액보험과 퇴직연금의 확대에 의하여 손해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FY2010 이후에는 장기손해보험과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손해보험 확대가 예상되어 손해보험의 증가 추세가 생명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FY2010 98.7조원, FY2015 133.6조원의 수입보험료를 나타낼 전망이며 5년 평균 성장률은 FY2010까지 10.1%, FY2015까지 6.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FY2010과 FY2015에 각각 37.3조원, 51.3조원의 수입보험료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5년 평균 성장률은 8.0%, 6.6%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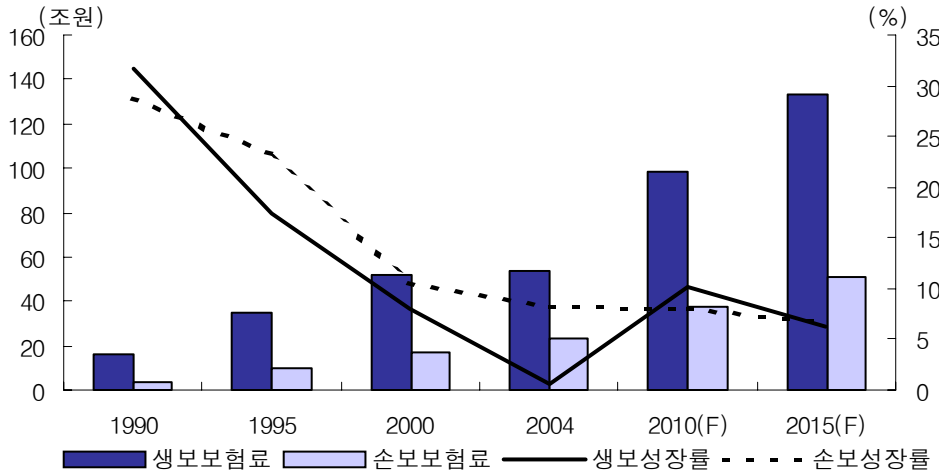
<표 III-12> 연도별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생명보험	15.8 (31.7)	35.3 (17.5)	52.1 (8.1)	53.8 (0.6)	98.7 (10.1)	133.6 (6.2)
손해보험	3.6 (28.8)	10.2 (23.2)	16.9 (10.6)	23.2 (8.3)	37.3 (8.0)	51.3 (6.6)
전체	19.4 (31.1)	45.5 (19.0)	69.0 (8.3)	77.0 (2.2)	136.0 (9.5)	184.9 (6.3)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19>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 및 성장률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보험침투도

보험침투도(수입보험료/경상GDP)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FY2010에는 12.0%, FY2015에는 12.3%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 종목별로는 생명보험의 경우 FY2010과 FY2015의 보험침투도가 FY2004 대비 1.8%p, 2.0%p 상승하여 8.7%, 8.9%를 각각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FY2010, FY2015에 보험침투도가 3.3%, 3.4%를 각각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I-13> 연도별 보험침투도 추이

(단위 : %)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생명보험	8.4	8.8	9.0	6.9	8.7	8.9
손해보험	1.9	2.7	2.9	3.0	3.3	3.4
전체	10.4	11.6	11.9	9.9	12.0	12.3

3) 1인당 보험료

FY2010의 국민 1인당보험료 즉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276만 4천원 정도로 꾸준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생명보험 보험료는 200만 5천원, 손해보험의 1인당 보험료는 75.9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1인당 보험료의 꾸준한 상승세는 FY2010 이후에도 계속되어 FY2015년에는 371만 2천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FY2015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1인당 보험료는 각각 268만 2천원과 103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14> 연도별 1인당 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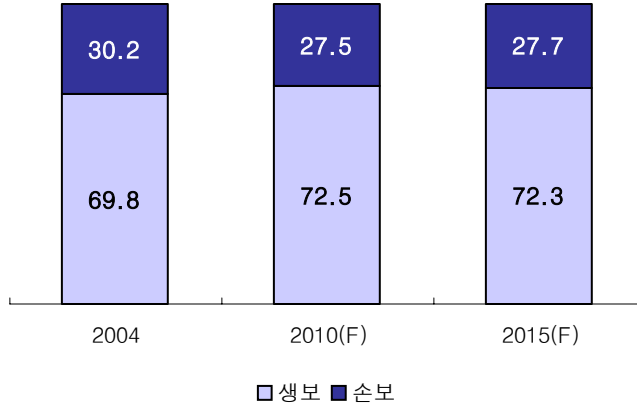
(단위: 천원)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생명보험	368	783	1,109	1,118	2,005	2,682
손해보험	84	242	359	483	759	1,030
전체	452	1,025	1,467	1,601	2,764	3,712

4) 생·손보 구성비

FY2010년 생·손보 구성비는 생명보험이 손해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FY2004보다 2.7%p 증가한 72.5%의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FY2010 이후에는 장기손해보험과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손해보험의 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FY2015에는 손해보험의 점유율이 FY2010 27.5%에서 27.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I-20> 생·손보 구성비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5) 생·손보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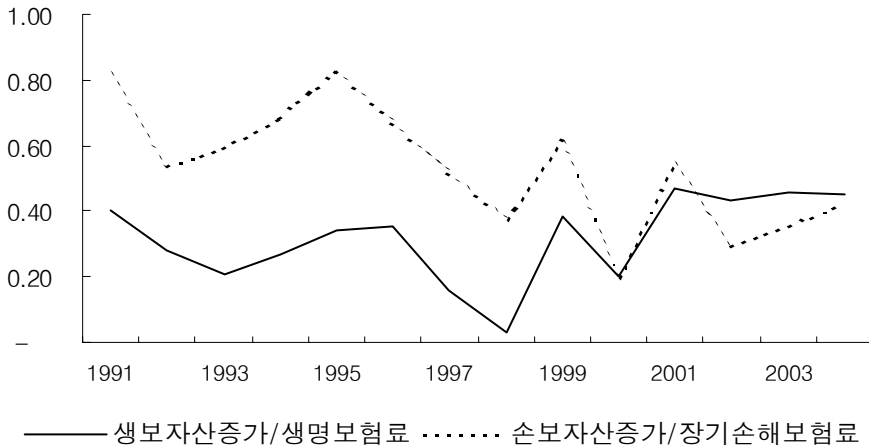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자산 규모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나 보험료에 대한 전망이 이루어진 만큼 이를 바탕으로 자산의 규모에 대한 중장기적인 추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 방법은 자산 증가의 구조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하기보다는 자산증가 규모와 보험료 사이의 간단한 관계를 이용하여 개략적으로 향후 추이를 추계해보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특히, 자산 증가의 주요 원인이 장기성보험의 부채라는 점에 착안하여 생명보험은 전체보험료를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를 바탕으로 자산증가를 파악했다.

<그림 III-21>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장기보험료 대비 자산 증가비율의 추이를 소개하고 있는데 2000년대 이후의 추이는 대략 평균 0.4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 전망치의 약 45%가 자산 증가로 나타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산업 전체 자산규모는 2004년 255

조원 수준에서 2010년에는 509조원, 그리고 2015년에는 838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생/손보간의 자산 규모비는 생명보험 전체 및 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이 모두 빠른 성장을 하는 관계로 5:1의 비중이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21> 보험료 대비 자산 증가 추이



<표 III-15> 보험산업 자산 규모 시나리오

(단위: 조원)

구분	FY1990	FY1995	FY2000	FY2004	FY2010(F)	FY2015(F)
생명보험	31.00	69.68	120.74	211.61	423.49	694.92
손해보험	4.84	12.71	28.05	43.20	85.58	143.27
전체	35.84	82.39	148.78	254.81	509.07	838.19
손보/생보	0.16	0.18	0.23	0.20	0.20	0.21

IV.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의 의의 및 전략과제

이 장에서는 제Ⅲ장의 전망에서 논의된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중장기 경영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전망은 다분히 보험시장의 외형성장 즉 보험료 전망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경영과제도 성장에서 파생되는 문제로 국한하고자 한다. 우선 향후 10년간의 보험산업 전망이 보험회사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성장을 주도할 종목과 그 의미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10년간의 성장 유형을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리스크 관리 및 경영 전략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제시하고자 한다.

1. 중장기 전망의 의의

향후 10년간 보험산업은 경제성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부양비 하락, 베이비붐 세대의 50대연령 진입 등 다양한 금융수요 확대가 예상되어 FY2015에 총보험료는 184.9조원, 연평균 7.9%의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보험산업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2005~2015년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연령 진입으로 은퇴와 관련된 금융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부양비가 하락하고 경제성장률이 4% 전후 수준을 유지하는 마지막 시기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양비는 2016년 36.6%의 저점을 기준으로 이후 전체 부양비 상승세가 전망됨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은 저축여력이 최대한 확대되는 시기인 동시에 2016년 이후에는 저축 및 투자부문의 위축이 우려된다. 또한 2010년까지 잠재GDP 성장률은 4%대를 나타내다가 이후 3%대로 하락하는 등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산업의 입장에서는 향후 10년이 성장을 위한 기회가

나 동시에 2015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저성장기에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본격적인 저성장기에 대비하여 2015년까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할 필요도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 및 은퇴시장에 대비한 보험회사 특유의 차별적 경쟁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2. 장기 경영 및 정책 과제

향후 10년 동안 예상되는 보험산업 환경변화로 미루어 볼 때, 은퇴시장의 발달로 인한 저축·투자형 상품,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보장성 상품 등이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 산업에서는 각종 정책성 보험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고, 각종 위험을 포괄 담보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첫째, 2005년 퇴직연금제 도입 이후 퇴직연금 시장이 발달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관련 금융수요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저축·투자형 부문의 성장이 예견된다. 단, 타금융권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생존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보험권만의 차별적인 상품/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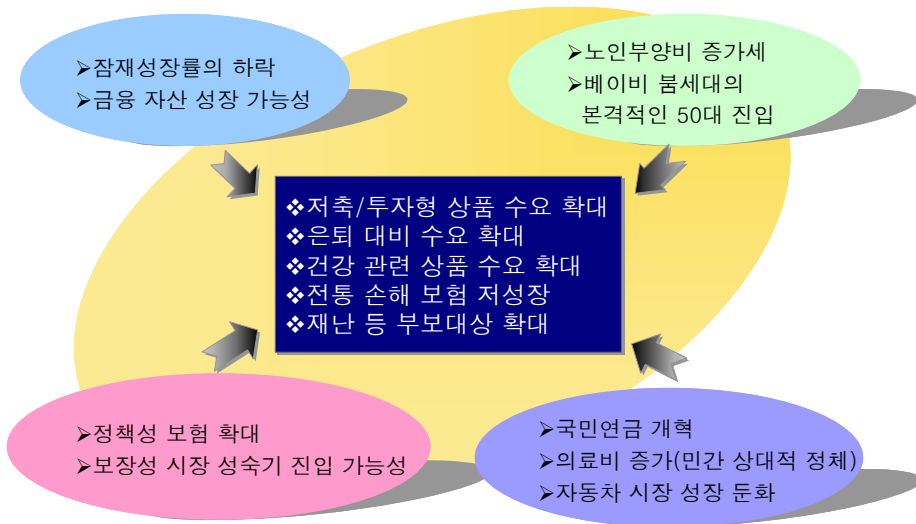
둘째,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보장성 상품 수요도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단, 국민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민영 건강보험 영역의 축소가 예상되고, 종신형 상품의 시장이 성숙됨에 따른 대응이 요구된다.

셋째,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풍수해보험 도입 등 재해 관련 정책성 보험이 확대될 전망이고, 다양한 위험에 대한 포괄보장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패키지형 상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다양한 거대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적정한 요율 산출 및 언더라이

팅 능력 제고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향후 보험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거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중심으로 본격적 저성장/저수익 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5년까지 중장적으로 기업차원에서 대비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크게 저축/투자형 상품과 보장성 상품으로 나누어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이후는 본격적인 경제의 저성장과 함께 보험산업의 저성장도 우려되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성숙단계에서 체질강화와 여타 금융산업과의 중첩되는 부문의 경쟁력 강화 등 독자적인 분야에서 서비스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IV-1> 보험산업 환경평가



가. 저축/투자형 상품

저축성 상품은 연금을 위주로 한 생존보험과 단기 저축성 상품이라 할 수 있는 생사혼합보험을 포함하며, 투자형 상품이란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저축보험료의 운영에 따른 투자리스크를 보험소비자가 지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2001년부터 도입된 변액보험은 현재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 변액CI보험, 및 기타의 형태로 도입되었으며, 최근 간접투자시장의 성장과 주식시장의 활황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변액보험의 성격은 실적배당형 및 투자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여전히 보험상품의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는 상품인데 펀드의 구성에서 채권비중이 다른 펀드에 비해 높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많다는 점과 종목별로 일정부분 전통보험의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변액유니버설(VUL, Variable Universal Life)보험의 경우 본격적인 투자형 상품으로 최근 도입되자마자 급격히 성장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어 향후 성장이 주목되는 상품이며, 보험사로서는 변액보험의 수요확대와 수익성, 판매 후 관리에 유념해야 할 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1) 보험기능의 강화

저축/투자형 보험상품은 향후 은퇴시장의 발달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품종목으로 보험사들의 입장에서는 중요성이 더해가는 상품군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저축성 보험상품은 세제혜택에 대한 정책에 따라 단기적으로 수입보험료의 크기가 크게 달라졌으며, 보험사들도 보험의 저축성 기능으로 강조하는 마케팅 정책을 펴왔었기에 저축성보험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을 아울러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시중금리와 예정이율간의 스프레드가 급격히 줄어들고 배당보험의 주주배당비율이 축소됨과 함께 자산운용의 부담을 느

껴온 보험사들이 비중을 축소해옴에 따라 성장이 크게 제한되었다.

최근에는 인구의 고령화와 은퇴 후 소득에 대한 소비자들이 인식이 제고되고 또 국민연금 재정의 적자심화가 예상되고 소득대체율의 하락이 예측됨에 따라 노후소득마련을 위한 저축성/투자형 상품의 중요성이 다시 시장측면에서 부각되고 있다. 연금측면에서 보험상품은 종신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최후 노후소득의 보루로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타금융권과 차별성을 가진다. 따라서 단기로 운영되어 왔던 기존의 관행은 앞으로 보험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장기운영으로 유도하여야 하며, 또한 변액유니버설보험의 판매도 장기적으로 연금상품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생애주기상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는 등 생존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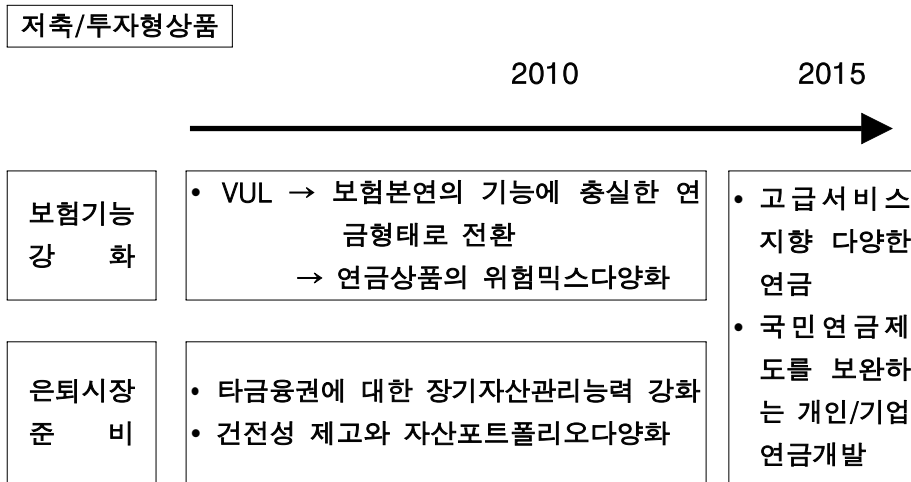
2) 은퇴시장 진출

은퇴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금융시장 또한 장기와 단기투자를 대상으로 각 금융권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금융권의 통합화 및 겸업화와의 진전과 함께 보험권의 많은 부분이 타금융권과 겹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능강화를 통한 보험사들의 준비를 요하고 있다. 자산운용에 있어 타금융권과 대비해 보험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자산의 운영경험에 오는 장기자산관리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으로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보험가입자들의 가입기간 장기화에 대비해 보다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해외 장기상품의 투자 등 다양한 장기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맞춘 장기자산의 확보와 리스크관리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한편 비록 예금보험기금의 보장이 있기는 하나 보험사의 선택에 있어 자산건전성은 보험사의 이미지제고뿐만 아니라 투자선택에 있어도 중요하게 작용하며,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자산건전성 강화와 함께 자산운용의 건전성강화도 중요한

장기 정책적 지향점이 될 필요가 있으며, 자산포트폴리오의 다양화로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IV-2> 저축/투자형 상품 정책과제



나. 보장성 상품

보장성 상품은 외환위기 이후 저축성 보험의 위축을 보충하고 보험본연의 기능강화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성장을 해왔다. 최근 성장의 둔화를 보이고 실손형 보장성 보험의 판매수익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공공건강보험의 의료비보장률이 상승이 예정되어 있어 민영건강보험 시장에 불투명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보다 정교한 상품설계와 개발 및 은퇴시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1) 상품위험관리 강화

보험료수입과 보험금지급을 결정하는 위험율의 관리는 보장성 상품

이 장기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며, 특히 장기적 경험이 부재한 상태에서 보장성 상품에 대한 위험관리는 중요하다. 종신보험의 성장은 고령화가 진전되고 시장이 성숙됨에 따라 생존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상품적 가치는 향후 보장성 상품의 시장 형성에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보장성 상품의 큰 축인 민영건강보험은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제도의 한 축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경쟁하며, 전국민적 건강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은 보충적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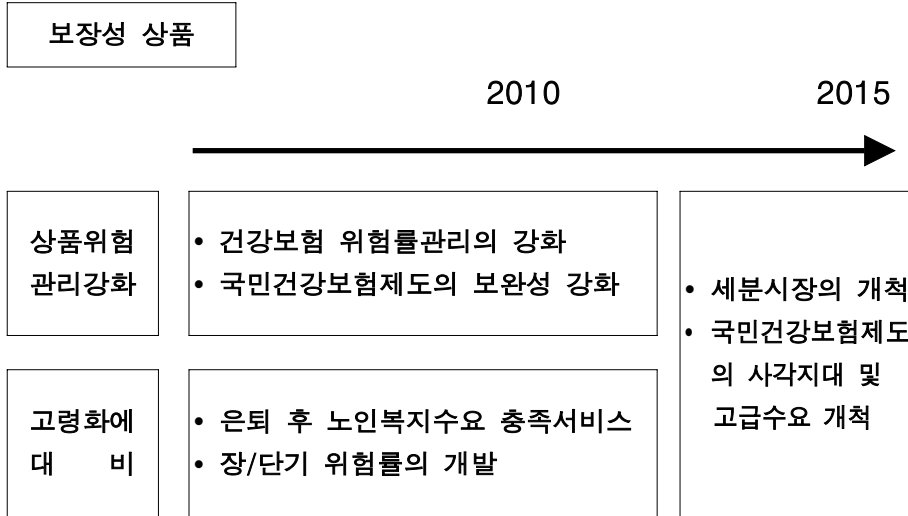
따라서 보험사들의 건강보험위험률에 대한 경험 통계를 집적하고 보험금지급에 대한 자료를 공유 및 지급심사 할 수 있는 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며, 보험사들도 장기적인 보장성 상품의 시장확대를 위해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 상품개발 측면에서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하고 담보하지 않는 상품의 개발 및 대중적 상품 외에 특화된 계층과 분야를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고령화에 대비

은퇴 후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미래 소득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건강관련 의료비의 상승뿐만 아니라 노인관련 복지수요도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대중 상대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담보할 수 없는 다양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구미선진국과 일본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건강보험상품의 개발과 노인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관련 수요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후기간의 장기화와 이에 대비한 젊은 층의 대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확한 장단기 상품의 가격설정을 위해 장기위험률 개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림 IV-3> 보장성 상품 정책과제



다. 정책성 보험 및 다양한 신상품 도입

1) 재해관련 정책성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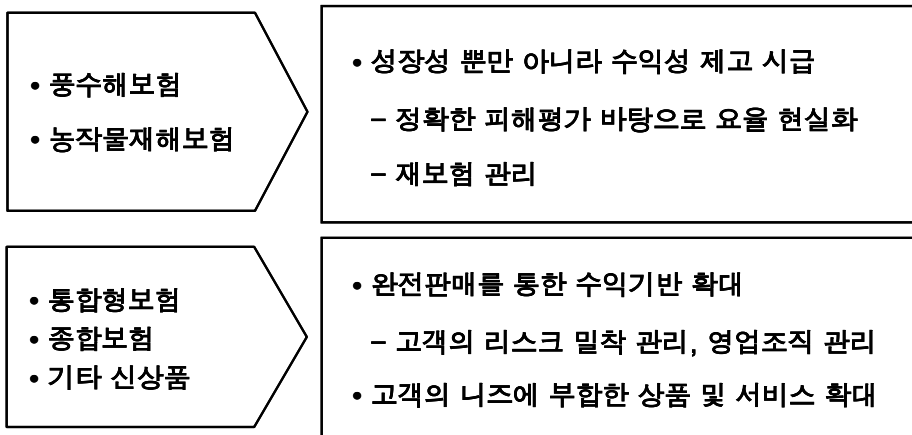
손해보험 산업에서는 최근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의 부보대상물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2006년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동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재해 관련 보험의 확대는 보험료 성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이와 함께 수익성 제고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즉, 거대재해의 특성상 보험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위협하고 보험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익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확한 피해평가를 바탕으로 효율을 현실화하는 등 언더라이팅 능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즉, 경험데이터에 의한 전통적 리스크 평가뿐만 아니라 CAT모델을 도

입하는 등 시뮬레이션을 통한 과학적 손실평가를 통해 적정한 요율을 적용시켜야 한다. 이는 해외 재보험시장에의 출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물건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켜 보험회사의 수익성,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 패키지형 보험 등 다양한 신상품 도입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통합형보험이나 다양한 위험을 포괄 보장하는 종합보험 등 패키지형 보험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지속적으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한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특히 통합형보험의 경우 단순히 상품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고객의 리스크를 밀착 관리함으로써 완전 판매를 통한 수익기반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객유지 관리를 통한 고객충성도 제고를 위해서는 컨설팅 능력을 갖춘 전문 영업조직 육성이 필요하다.

<그림 IV-4> 패키지형 및 정책성 보험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V. 결 론

이 연구는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수립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까지 국내 주요 보험환경 변수와 보험지표에 대해 중장기 전망을 제시하였다. 특히, OECD에 가입한 보험선진국들의 보험소비와 관련 환경변수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도 많은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중장기 전망을 통해 산출된 주요 보험지표가 시사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성 및 실증 분석을 통해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ECD에 가입한 주요 선진국과 보험환경 변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기대여명과 노인부양비가 급격히 상승하여 생존리스크가 증가하고 노인부양 부담이 급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경제규모 대비 가계금융자산 및 보험 및 연금 자산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향후 보험 및 연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잠재력은 충분할 것으로 기대되었고, 인구 천 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나 도로 혼잡도는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어 자동차 보험 시장의 성장 여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둘째, 보험산업의 국제비교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침투도는 선진국 수준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손해보험 침투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보장이 발전한 유럽은 저축성보험이 중심인 반면, 미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보장성 보험의 비중이 컸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은 보장·저축, 개인·단체 모두 균형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화재, 해상 보험과 같은 전통적 손해보험 침투도의 정체는 세계적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배상책임과 상해·건강 보험의 성장은 세계적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간 선진국에서 보험산업은 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보험료 성장이 경

상GDP 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국내 보험환경 변수에 대해 중장기 전망을 실시한 결과, 전체 부양비는 2016년까지 하락세를 지속하고 2005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연령에 편입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이후 잠재성장률은 3%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10년 기간을 볼 때 환경적으로 보험산업에 위협과 기회가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예측된 환경변수를 바탕으로 계량모형과 연구자들의 견해(view)를 반영하여 주요 보험지표를 전망한 결과, 생명보험은 2010년까지 고성장 후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저축성 보험을 중심으로 침투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손해보험은 특종보험 외에 일반손해보험이 저조한 반면 장기손해보험이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경상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건조한 성장세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전망을 바탕으로 하여, 저축·투자형 상품의 경우 보험기능을 강화하는 연금상품의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보장성 상품의 경우 적절한 위험관리 및 개발을 통해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손해보험 산업에서는 각종 정책성 보험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고 각종 위험을 포괄 담보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 국제비교 및 국내 보험지표를 예측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 제약조건이 있었으며, 특히 연도별 보험수요를 전망하기 때문에 종목별 보험료 시계열이 짧은 현실상 모형설정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보다 많이 집적되어 긴 시계열을 이용한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전망에 앞서 보험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모형 자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부록> 보험산업 주요 전망치 요약

1. 보험산업 주요 지표

항 목	FY2004	FY2010(F)	FY2015(F)
수입보험료(억 원, 성장률)			
- 생명보험	537,506(6.7%)	986,809(10.1%)	1,335,849(6.2%)
- 손해보험	232,173(8.6%)	373,398(8.0%)	512,860(6.6%)
- 전 체	769,679(7.2%)	1,360,207(9.5%)	1,848,709(6.3%)
보험침투도(%)*			
- 생명보험	6.9	8.7	8.9
- 손해보험	3.0	3.3	3.4
- 전 체	9.9	12.0	12.3
1인당보험료(천 원)			
- 생명보험	1,118	2,005	2,682
- 손해보험	483	759	1,030
- 전 체	1,601	2,764	3,712
생손보 구성비(%)	69.8 : 30.2	72.5 : 27.5	72.3 : 27.7

주: 1) 보험침투도는 (총수입보험료/경상GDP×100)임.

2)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치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10(F)	FY2015(F)	10년평균 성장률
생 명 보 험	개인보험	480,140	861,815	1,164,808	8.0
		-	9.9	6.2	
	단체보험	57,366	124,994	171,041	9.0
		-	11.6	6.5	
	합계	537,506	986,809	1,335,849	8.2
		-	10.1	6.2	
손 해 보 험	화재	2,937	3,287	3,445	1.1
		-	1.2	0.9	
	해상	5,071	6,315	7,520	3.5
		-	3.5	3.6	
	보증	9,018	10,718	12,781	3.4
		-	3.3	3.6	
	특종	21,180	39,879	67,342	11.1
		-	11.1	11.0	
	일반소계	38,206	60,199	91,088	8.3
		-	7.9	8.6	
	자동차	85,208	107,911	125,410	3.6
		-	4.2	3.1	
	장기	108,774	205,288	296,362	8.9
		-	10.3	7.6	
	합계	232,188	373,398	512,860	7.2
		-	8.0	6.6	
	보험산업 전체	769,694	1,360,207	1,848,709	7.9
		-	9.5	6.3	

주 : 하단수치는 직전 5년개년도 평균성장률임.

< 참고 문헌 >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월호.
- 김대일,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
- 김동석,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1963~2000』, 한국개발연구원, 2002.
- 김동환, 『은행시스템의 진화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05.
- 김원식·노인철, 『기업연금의 도입과 국민연금과의 관계설정』, 국민연금연구센터 연구보고서 2002-11, 2002.12.
- 노동연구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05~2020)』, 2005. 5.
- 노희진, 「금융시스템 분석과 향후 나아갈 방향」, 『증권예탁 제42호』, 증권예탁원, 2002, pp.3~39.
- 류건식·신문식,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수익규모전망 및 과제(WII 제59호)』, 보험개발원, 2004. 9.
- 문형표,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05. 4.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시장규모 및 트렌드 분석』, 2000. 11.
 ,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2005.11.
- 삼성금융연구소, 『생명보험시장 전망모형』, 2004. 12
-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각 연호.
- 윤석명·이정우·김대철, 『고령시대를 대비한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국민연금연구센터 정책보고서 2003-06, 2004. 8.
- 이경주,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수요의 이론적 고찰」, 『보험학회지』, 2001.
- 조용운, 『민영건강보험의 리스크관리 방안』, 보험개발원 CEO Report, 2005. 4.
- 최경수·문형표·신인석·한진희 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I)』, 한국개발연구원, 2003. 12.

- 한국개발연구원,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 2004.12.
-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국내 자동차수요 중장기 전망』, 2000.
- 한국금융연구원, 『고령화에 따른 금융부문의 대응』, 2005. 2.25
- 허연·허성수, 「기업보험의 수요에 대한 실증 연구」, 『보험학회지』, 2003.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각 연호.
- Auerbach, A. T., and L. J. Kotlikoff, "How Rational is the Purchase of Life Insuranc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 3063, 1989.
- Beck, T. and Webb, I. "Economic, Demographic, and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Life Insurance Consumption across Countries",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17*, 2003, pp. 51-88.
- Berekson, L. L., "Birth Order, Anxiety, Affiliation and the Purchase of Life Insuranc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39, 1972, pp. 93-108.
- Bernheim, B. D., "How Strong Are Bequest Motives: Evidence Based on Estimates of the Demand for Life Insurance and Annuit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 1991, pp. 899-927.
- Bodie, A., R. C. Merton and W. F. Samuelson, "Labor Supply flexibility and Portfolio Choice in a Life Cycle Model",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16, 1992, pp. 427-449.
- Browne, M. J., and K. Kim, "An International Analysis of Life Insurance Demand",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0, 1993, pp. 616-634.
- Burnett, J. J., and B. A. Palmer, "Examining Life Insurance Ownership Through Demographic and Psychographic Characteristic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1, 1984, pp. 453-467.
- Campbell, R. A., "The Demand for Life Insurance: An Application of the Economics of Uncertainty", *Journal of Finance* 35, 1980, pp.

1155-1172.

Chen, R., K. A. Wong, and H. C. Lee, "Age, Period and Cohort Effects on Life Insurance Purchases in the U.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8, 2001, pp. 303-327.

Datamonitor, *European Life and Pensions Distribution Databook 2005*, 2005.05.

Ferber, R., and L. C. Lee, "Acquisition and Accumulation of Life Insurance in Early Married Lif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47, 1980, pp. 713-734.

Goldsmith, A., "Household Life Cycle Protection: Human Capital Versus Life Insuranc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3, 1983, pp. 33-44.

Headen, R. S., and J. F. Lee, "Life Insurance Demand and Household Portfolio Behavior",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41, 1974, pp. 685-698.

Heaton, J. and D. Lucas, "Market Frictions, Saving Behavior, and Portfolio Choice", *Macroeconomic-Dynamics* 1, 1997, pp. 76-101.

Jagannathan, R. and N. R. Kocherlakota, "Why Should Older People Invest Less in Stocks than Younger People?",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Quarterly Review* 20, 1996, pp. 11-23.

Lewis, F. D., "Dependents and the Demand for Life Insurance", *American Economic Review* 79, 1989, pp. 452-467.

Ma, Y. L. and N. Pope,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Insurers' Participation in Foreign Non-Life Market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70, 2003, pp. 235-248.

Mayers, D. and C. W. Smith, "The Interdependence of Individual Portfolio Decisions and the Demand for Insurance", *Journal of Political*

- Economy* 91, 1983, pp. 304-311.
- OECD, *OECD Health Data 2005*, 2005.
-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 Showers, V. E., and J. A. Shotick, "The Effects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on Demand for Insurance: A Tobit Analysi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1, 1994, pp. 492-502.
- Forbes, Stephen W., "International Issues In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LOMA, 2002.
- Truett, D. B., and L. J. Truett, "The Demand for Life Insurance in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7, 1990, pp. 321-328.
- Esho, N., A. Kirevsky, D. Ward, and R. Zurbruegg, "Law and The Determinants of Property-Casualty Insurance",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71, 2004.
- Hoyt, R. E., and H. Khang, "On The Demand For Corporate Property Insurance",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7, 2000.
- Williams, A., "Higher Interest Rates, Longer Lifetimes, and the Demand for Life Annuitie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3, 1986, pp. 164-171.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96-1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이후의 보험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 최용석, 1996.4
- 96-2 보험회사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 오영수, 1997.2
- 96-3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자동차보험 무보험 운전자 문제를 중심으로 / 서영길, 박중영, 1997.3
- 96-4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7.3
- 96-5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1997.3
- 96-6 분리계정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세부도입방안 / 이근영, 박태준, 장강봉, 1997.3
- 96-7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I) : 총론 / 오영수, 이경희, 김란, 1997.3
- 96-8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 정봉은, 노병윤, 목진영, 1997.3
- 96-9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효율화 방안 / 김규승, 박홍민, 장재일, 1997.3.
- 97-1 보증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 이희춘, 신동호, 이기형, 이준섭, 1997.5.
- 97-2 남북 경험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독일 모델을 중심으로 /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1997.11
- 98-1 보험산업의 M&A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M&A 추세 및 유인을 중심으로 / 김호경, 박태준, 1998.1
- 98-2 생명보험회사의 적정성장에 관한 연구 / 이원돈, 이승철, 장재일, 1998.2
- 98-3 생명보험 예정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8.2
- 98-4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 :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8.3
- 98-5 주요국의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활용사례분석 및 국내사의 운용전략 / 정재욱, 정영철, 한성진, 1998.3
- 98-6 보험기업 경영진단시스템 :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김호경, 김혜성, 1998.3
- 98-7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 성주호, 김진억, 1998.6
- 98-8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및 운용방안 / 이원돈, 이승철, 장강봉, 1998.10
- 99-1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I) : 의료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9.2
- 99-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 이득주, 서영길, 장동식, 1999.3

99-3 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방안 / 성주호, 김진억, 1999.3

99-4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대한 연구 / 신동호, 이희춘, 차일권, 조혜원, 1999.3

99-5 생존분석기법(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생명보험 실효·해약 분석 / 강중철, 장강봉, 1999.3

99-6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박일용, 안철경, 1999.7

99-7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 및 대응방안 / 노병윤, 장강봉, 1999.12

99-8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 안철경, 박일용, 1999.12

2000-1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 2000.3

2000-2 ART를 활용한 손보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3

2000-3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3

2000-4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3

2000-5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승철, 2000.3

2000-6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현수, 2000.6

2000-7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해식, 2000.8

2000-8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9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렌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11

2000-1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12

2001-1 사이버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 안철경, 장동식, 2001.1

2001-2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현황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정세창, 권순일, 김재봉, 2001.1

2001-3 손해보험 종목별 투자수익 산출 및 요율 적용 방안 / 이희춘, 조혜원, 2001.1

2001-4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 류건식, 이경희, 2001.3

2001-5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연구 / 신동호, 안철경, 박홍민, 김경환, 2001.3

2001-6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도수, 2001.4

2001-7 보험회사 CRM에 관한 연구 : CRM 성공요인 및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안철경, 조혜원, 2001.8

2001-8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재현, 이경희, 2001.10

2001-9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 박홍민, 김경환, 2001.10

2001-10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민영장기간병보험 발전방안 / 김기홍, 2001.12

2001-11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 김해식, 2001.12

- 2002-1 국내외 보험사기 관리 실태 분석 / 안철경, 김경환, 조혜원, 2002. 3
- 2002-2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 박홍민, 이경희, 2002. 3
- 2002-3 보험회사 리스크 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 류건식, 정석영, 이정환, 2002. 5
- 2002-4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 / 신문식, 김경환, 2002. 5
- 2002-5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천일영, 신동현, 2002. 10
- 2002-6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 신문식, 장동식, 2002. 10
- 2002-7 방카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 정세창, 박홍민, 이정환, 2002. 12
- 2002-8 생명보험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신동현, 배운희, 2002. 12
- 2003-1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오영수, 이경희, 2003. 3
- 2003-2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 박홍민, 권순일, 이한덕, 2003. 3
- 2003-3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 신문식, 장동식, 2003. 3
- 2003-4 생명보험사 RAS체제에 관한 연구 / 류건식, 김해식, 정석영, 2003. 7
- 2003-5 보험소비를 위한 보험교육방안 / 이기형, 조재현, 2003. 11
- 2003-6 보험설계사 조직의 개편방안 / 신문식, 이경희, 이정환, 2003. 12
- 2004-1 부유층 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 / 신문식, 이경희, 2004. 3
- 2004-2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태열, 2004.7
- 2004-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전략 / 류건식, 김세환, 2004.7
- 2004-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 임병인, 김세환, 2004.9
- 2004-5 신용리스크 전가시장과 보험회사 참여에 대한 연구 / 주민정, 조재현, 2004.10
- 2004-6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마케팅 전략 / 류건식, 신문식, 정석영, 2004.12
- 2004-7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이순재, 2005.1
- 2005-1 보험산업의 비전과 대응전략 / 신문식, 임병인, 조재현, 2005.
- 2005-2 전환기의 손해보험회사 발전방안 / 정중영, 2005.
- 2005-3 손해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나우승, 김해식, 2005.5
- 2005-4 저금리 추이에 따른 이차역마진 현상과 대응방안 / 김석영, 나우승, 2005.10
- 2005-5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 류건식, 김해식, 2005.10
- 2005-6 모집조직 다변화에 따른 보험모집제도 개선방안 / 신문식, 조재현, 박정희, 2005.11
- 2005-7 퇴직연금제도 재정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상우, 2005.11

■ 연구조사자료

- 96-1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 현황 / 김기홍, 김평원, 정봉은, 유지호, 1996.2
- 96-2 독일 보험감독법, 1996.2
- 96-3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 이기형, 김란, 조혜원, 1996.10
- 96-4 캡티브 보험사 설립에 관한 연구 / 김평원, 오평석, 안철경, 조혜원, 1996.12
- 96-5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 이재복, 1997.3
- 97-1 국제보험세미나 (IIS) 발표 논문집 (제 33차), 1997.7
- 97-2 태평양보험회의 (PIC) 발표 논문집 (제 18차), 1997.9
- 98-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 (I) / 김영옥, 차일권, 1998.2
- 98-2 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8.3
- 98-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8.3
- 98-4 보험회사의 적대적 M&A와 대응수단에 관한 연구 / 김호경, 박상호, 장재일, 1998.8
- 98-5 MAI협상의 진전과 국내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정영철, 한성진, 1998.8
- 98-6 보험회사의 리스크 증대와 대응 / 이기형, 박중영, 장기중, 1998.10
- 98-7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 : 의료사고위험을 중심으로 / 신동호, 차일권, 1998.11
- 99-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I) : 임원배상책임보험 / 임창희, 1999.1
- 99-2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황 및 제도 변화 / 김호경, 박상호, 1999.3
- 99-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9.3
- 99-4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 김해식, 1999.6
- 99-5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외국사례 및 생명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정봉은, 이승철, 1999.7
- 99-6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 이원돈, 정봉은, 신동호, 안철경, 1999.7
- 99-7 지진재해와 지진보험 : 일본의 지진보험을 중심으로 / 이상우, 1999.7
- 99-8 주요국의 보험계리인제도 / 최용석, 노병윤, 1999.8

- 99-9 생명보험 계약심사제도 / 장강봉, 1999.11
- 99-10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2000.2
- 2000-1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업창회, 2000.3
- 2000-2 보험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 2001-1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1
- 2001-2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보험2본부, 2001.1
- 2001-3 지방채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업창회, 2001.3
- 2001-4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3
- 2001-5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 2001.6
- 2001-6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 / 보험1본부, 2001.11
- 2001-7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I) / 보험연구소, 2001.11
- 2002-1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2.3
- 2002-2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 김진선, 안철경, 권순일, 2002.9
- 2003-1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 2003-2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 천일영, 주민정, 신동현, 2003.3
- 2004-1 2004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4.3
- 2004-2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 김해식, 2004.
- 2005-1 금리 시나리오 생명모델 연구 / 김석영, 2005.3
- 2005-2 2005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신문식, 김세환, 조재현, 2005.3

■ 정책연구자료

-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7.10
- 97-2 '9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7.11
- 98-1 '9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8.11
- 99-1 200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9.11
-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 2000-1 200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0.10
-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1
- 2001-2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1.11
- 2001-3 세계금융서비스 산업의 겸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 정세창, 권순일, 2001.12
- 2002-1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2.11
- 2003-1 주요국의 방키슈랑스 규제 / 안철경, 신문식, 이상우, 조혜원, 2003.7
- 2003-2 200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3.12
- 2004-1 200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4.11
- 2005-1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 /한기정, 2005.2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Insurance Business Report

-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 이기형, 1997.5
-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제 / 양성문, 1998.3
- 7호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5
- 8호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건정성을 중심으로 / 노병윤, 안철경, 이승철, 1999.2
- 9호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3
- 10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3
- 11호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해식, 1999.3
-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10
-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 14호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 정희남, 2002.4
- 15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 동향분석팀, 2002. 9
-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5
-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례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 19호 공정가치회계가 보험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험사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이기형, 김해식, 2004.10

■ 영문 발간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1호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CEO Report

- 2000-1 일본 제일화재의 파산에 따른 국내 손보산업에의 시사점 / 양성문, 김혜성, 2000. 5
2000-2 일본 제백생명의 파산에 따른 국내 생보산업에의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0. 6
2000-3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방안/김재현, 2000. 10
2000-4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과 기대효과 / 안철경, 2000. 11
2001-1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현황과 시사점 / 신문식, 권순일, 2001. 8
2001-2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동향과 향후과제 / 서영길, 기승도, 2001. 8
2001-3 일반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이희춘, 문성연, 2001. 10
2002-1 금융재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 보험연구소, 2002. 4
2002-2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 손해보험본부, 2002. 6
2002-3 종신평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2. 6
2002-4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본부, 2002. 9
2002-5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발과 향후 운영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2. 10
2002-6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2. 10

- 2003-1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 장기손해보험팀, 2003. 2
- 2003-2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 3
- 2003-3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 오영수, 2003. 6
- 2003-4 국가재해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방향 / 손해보험본부, 2003. 7
- 2003-5 생명보험산업에서의 경험통계 활용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3. 7
- 2003-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 동향분석팀, 2003. 8
- 2003-7 퇴직연금시장 전망과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류건식, 남효성, 박홍민, 2003. 12
- 2004-1 자동차보험 예정기초율 연구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2
- 2004-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제휴 성공전략 / 연구조정실, 2004. 2
- 2004-3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향후과제 / 생명보험본부, 2004. 2
- 2004-4 자동차보험 손해를 악화원인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2
- 2004-5 생명보험가입자의 사망원인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 3
- 2004-6 역모지기 (Reverse Mortgage)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4. 3
- 2004-7 자동차 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4
- 2004-8 EU 지급여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 6
- 2004-9 퇴직연금시대 도래와 보험회사의 진입전략 / 보험연구소, 2004. 7
- 2004-10 자동차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4
- 2004-11 손보사의 자연재해보험시장의 참여전략 / 손해보험본부, 2004. 9
- 2004-12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해외보험사 CEO들의 인식과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4. 10
- 2004-13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4. 11
- 2004-14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도입과 향후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4. 12

- 2005-1 생명보험 계약자 속성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5. 3
- 2005-2 민영건강보험의 리스크관리 방안 / 보험연구소, 2005. 4
- 2005-3 차명모델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도입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 3
- 2005-4 FY2005 수입보험료 전망 / 보험연구소, 2005. 6
- 2005-5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차량수리비 관리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5. 7
- 2005-6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와 CAT 모델 / 손해보험본부, 2005. 7
- 2005-7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감소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 7
- 2005-8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 및 국민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암보험 대응방안 / 보험연구소, 2005. 6

정기간행물

월간 _____

보험통계월보

계간 _____

보험동향

계간 _____

보험개발연구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연구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10~15회/년) ·조사연구자료(5~10회/년) ·정책연구자료(3~5회/년)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보험개발연구(3-4회) ·보험동향(계간)	-연구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10~15회/년) ·조사연구자료(5~10회/년) ·정책연구자료(3~5회/년)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보험개발연구(3-4회) ·보험동향(계간)	-	- 간행물별 연간 구독료는 다음과 같음 ·보험개발연구 (연간3회~4회 ₩ 30,000)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보험동향 (계간 ₩ 20,000)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영문발간자료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230,4407 팩스 : 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한미은행 (110-55016-257)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가입절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Knowledge Center에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개발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 영광서적

저자약력

이 대 열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박사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장
(E-mail : tylee@kidi.or.kr)

최 영 목

중앙대학교 경영학박사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 부연구위원
(E-mail : ymchoi@kidi.or.kr)

조 혜 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석사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 선임연구원
(E-mail : hwcho@kidi.or.kr)

김 진 역

서울대학교 경영학석사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 선임연구원
(E-mail : kjo990@kidi.or.kr)

최 원

서강대학교 경영학석사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 연구원
(E-mail : kinowon@kidi.or.kr)

연구보고서 2005-9

보험산업 주요 지표의 중장기 전망

발행일 2005년 12월 일

발행인 김 창 수

편집인 오 영 수

발행처 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02) 368-4000

ISBN 89-5710-032-6 94320

정가 10,000원